21세기 태양

7

영 생



6.15주간 편집부



영 생

6.15주간 편집부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우리 국가의 걸출한 영도자이시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전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우리 수령님은 동서고금에 일찌이 없었던 위대한 수령이시였습니다.≫

≪**김일성**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이론과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이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숭고한 인덕으로 만사람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하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50년 동안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과 국가, 인민을 이끄

시어 그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령님은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어버이시였습니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끝없이 인자하고 겸허하신 분이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으며 원로이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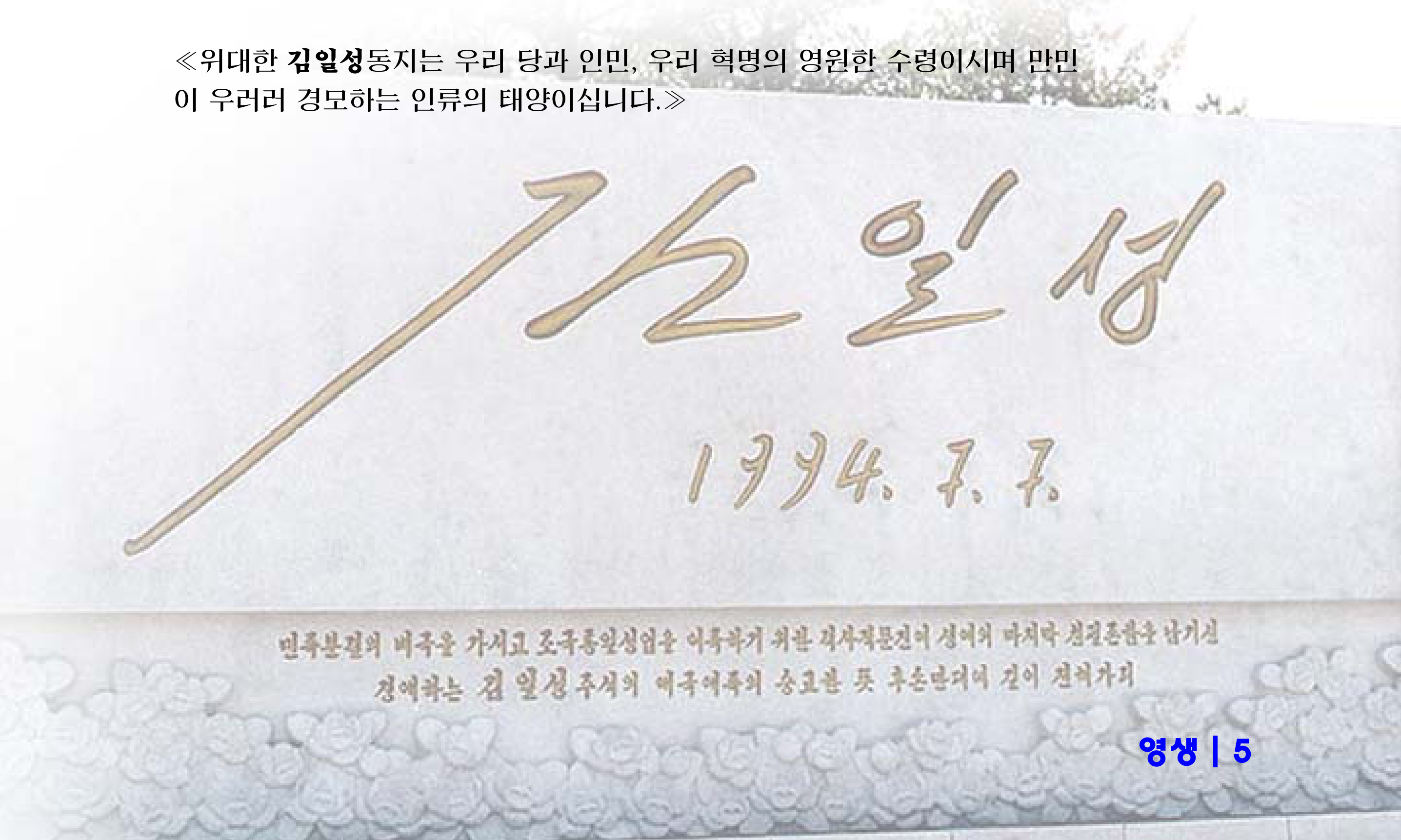
≪우리 수령님은 만민을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따르고 우러르는 은혜로운 태양이시다.≫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덕성의 위대성이야말로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특징짓는 3대 풍모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이론과 현명한 령도로 현대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그이께서 지니신 천재적인 사상이론과 특출한 령도력으로 하여, 한없이 너그럽고 자애에 넘친 인품과 높은 덕망으로하여 인류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존경과 흠모를 낳은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정일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0월 16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100일이 되였습니다. 지난 100일동안은 우리 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었으며 얼마나 큰 수령복을 누려왔는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력사적인 나날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에도 언제나 수령님의 위대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만 수령님을 잃고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 하는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온갖 시련의 고비를 넘고넘으시며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면서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령도하신 시기를 내놓고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신 력사만 해도 반세기입니다. 수령님께서 한해만 더 계시였어도 조국해방 50돐과 당창건 50돐을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게 맞이하겠는데 애석하게도 1년을 앞두고 서거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50년동안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서 당과 국가, 인민을 이끄시여 그처럼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인류력사와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 가장 위대한 공적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정말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령도로 현대력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은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령도자이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끝없이 사랑하시였으며 고귀한 모든것을 인민이라는 이름과 결부시키시였습니다. 우리 나라 국호에도 인민이라는 말을 넣고 군대의 이름에도 인민이라는 말을 넣으시였으며 대학습당과 문화궁전도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이라고 부르고 병원들도 인민병원이라고 부르도록 하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끝없이 인자하고 겸허하신분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7월 6일 나에게 전화를 거시여 당의 의견을 받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수령님께서 결심하시면 당에서는 그대로 할것이라고 말씀드리니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당에서 승인한것으로 보고 활동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그날 나에게 거신 전화가 나와 하신 마지막전화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날의 일을 미리 예견하신것처럼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생을 마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80고령이시였지만 최근 몇해사이에 항일혁명투사들을 다 만나주시고 남조선혁명가유자녀들을 비롯한 혁명가유자녀들도 만나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을 쓰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연고자들을 다 찾으시고 국내에 있는 연고자들은 물론 해외에 있는 연고자들까지 불러 만나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과 연고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자신께서는 김정일동지의 덕택으로 건강하다고 하시며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연고자들에게 몸소 손목시계도 채워주시면서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기념촬영도 많이 하여주시였습니다. 올해에만도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과 전국석탄공업일군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여러 부문 일군들을 만나시고 많은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4월 25일에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는데 그 교시가 인민군대에 주신 수령님의 마지막유훈입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을 잘 받들데 대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농업부문 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으며 돌아가시기 직전인 7월 5일과 6일에는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올해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여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으며 미국 전 대통령 카터를 만나시여 조미회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조국통일문제를 내놓고는 모든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하시였습니다. 조국통일문제도 멀지 않아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놓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지금 갈라져 살고있지만 멀지 않아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수령님께서는 모든 부문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 영원히 지울수 없는 여운을 남기고 돌아가시였습니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시고 돌아간 령도자는 없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시였는데 심장병을 앓으신지는 여러해 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걱정할것 같아 수령님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령님께서 올해에는 눈병까지 앓으시여 신년사를 하실 때에 잘 보이지 않아 원고를 들고 힘들게 읽으시였습니다. 그래서 눈수술을 받으시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런 수술을 받으면 한달나마 쉬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눈수술을 받으면 한달나마 쉬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눈수술을 받으신지 며칠 안되여 손원태를 만나시였고 이어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학생소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후에는 우리 나라에 찾아온 카터를 만나시였고 다른 나라 대표단도 만나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동적으로 제기할 정치경제적문제들을 친히 구상하시였으며 문건도 많이 보아주시고 온천군과 평양시주변 농장들을 현지지도까지 하시면서 긴장하게 사업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심장병으로 여러해 앓으시였지만 병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신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80이 지난 고령이심에도 이처럼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끊임없는 활동을 벌리시다보니 수령님의 심장병이 더 심해지게 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80이 넘도록 정력적으로 사업하다가 돌아간 령도자는 세상에 없을것입니다. 수령님께서 그렇듯 인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너무나 갑자기 서거하시였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이 더 가슴아파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다가 집무실에서 돌아가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서거는 순직입니다. 생의 마지막순가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며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돌아가신 령도자는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한분밖에 없으며 이런 점에서도 수령님은 정말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습니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과 뛰여난 인품, 소탈한 품성과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거룩한 영상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특출한 위인상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수령님은 위인으로서의 천품을 타고난 위대한분이시라는것을 더욱더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령님이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글을 많이 써서 인민들에게 알려주고 대대손손 길이 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경모의 마음이 뜨겁게 발현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에게 참다운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을 잊지 못해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과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낮에 밤을 이어 그칠사이가 없었으며 남녀로소 할것없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상제가 되여 수령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수령님을 끝없이 추모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며칠째 되는 어느날 내가 시내를 돌아보면서 만수대동상쪽에 가보았는데 교양마당에서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비가 내리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령님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었으며 교양마당의 계단아래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들가운데는 화환을 드리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한 댓명의 청년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웃옷을 화환에 씌워 화환이 비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한참동안 보면서 청년대학생들의 소행이 너무도 기특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새 세대 청년들이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하니 격해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령님의 서거 100일중앙추모회가 끝난 다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를 하고 나오면서 보니 추모회에 참가하였던 가정부인들이 금수산의사당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마 수령님을 뵙고싶은 마음을 누를수 없어서 그랬을것입니다. 어제밤에도 평양시안을 돌아보면서 만수대언덕쪽으로 가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찬비가 내리는데도 수령님의 동상에 계속 찾아오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찬비를 맞는것이 가슴아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한 일군을 전화로 찾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이번 애도기간에 세상사람들에게 조선인민이 어떤 인민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자기 수령에 대한 례의도덕을 지킬줄 아는 숭고한 도덕관을 지닌 인민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령을 흠모하고 받드는 사상감정과 정신도덕적풍모가 세계 그 어느 나라 인민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고상한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처럼 훌륭한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복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켜나가고있는것은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과 지극한 효성에 대하여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적들까지 탄복하고있습니다. 애도기간에 우리 나라에 왔던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 실업가들과 기술자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 기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와 존경심을 지니고있으며 그이의 서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있다, 세상에서 이런 인민은 처음 본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씨엔엔텔레비죤방송과 일본의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은 우리 나라에서 전체 인민이 수령님을 잃은데 대하여 끝없이 슬퍼하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고있는 모습을 널리 보도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으뜸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보고 적들은 우리가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무서워하고있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에서 적들은 우리 인민의 슬퍼하는 모습뿐아니라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인민과 같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인민앞에서는 그 어떤 대적도, 현대적인 무기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 인민은 정말 위대한 인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에게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인민이 그토록 비통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추모한데 대하여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인민복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다 수령님의 덕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푸시여 당과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도록 해주시였고 인민들을 교양하시여 수령을 알고 당을 아는 훌륭한 인민으로 키워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은덕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하며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는것을 크나큰 긍지와 영예로 간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그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계십니다. 수령님께서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서, 민족의 태양으로서 영생하고계십니다.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수령님을 떠나서 세계에 빛을 뿌리는 오늘의 조선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수령님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 긍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더욱 잘하여야 합니다. 민족적자존심이 없으면 사대주의적이며 굴욕적인 력사가 되풀이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령도따라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조선민족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숭고한 도덕관을 가지고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적풍모는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으니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는 추대사업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우리의 숭고한 도덕관의 견지에서 보아도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는 사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생애의

1994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4년은 수령님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활동을 벌리신 마지막해입니다. 그런것만큼 1994년은 수령님을 애도하는 해로 하여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애도기간을 100일이나 1년, 3년으로 하였습니다. 추대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영원히 모시는 사업을 해놓은 다음에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령구앞에서 인민들이 목놓아울던 비분이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당과 국가 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고 만세를 부르는것은 전사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체제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들은 자기 령도자에게 충성을 다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였지만 우리 인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꿋꿋이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이번 애도기간에 우리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공고한가 하는것이 힘있게 시위되였는데 이런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하여놓으신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수령님께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놓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의 시련을 이겨낼수 없을것입니다.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우리 당이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으며 당의 령도체계가 튼튼히 서있는 조건에서 추대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대사업을 놓고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혁명의 한길로만 변함없이 걸어가야 하며 수령님의 위업을 수행해나가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관직은 어떻든 혁명만 하면 됩니다. 수령님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항일혁명을 이끄신것이 조국이 광복된 다음 당총비서가 되고 국가주석이 되기 위하여 하신것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는 오로지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20성상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자신을 수령님의 전사로 생각하여왔습니다. 나는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나 서거하신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전사로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한 맹세와 서거하신 다음에 하는 맹세가 달라서는 안되며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도적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여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화환과 꽃다발을 드리고 조의를 표시하고있습니다. 나는 인민들의 념원대로 애도기간을 늘이고 계속 조의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체 인민이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추모한 나날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깊이 심어준 나날이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이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변함없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면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참다운 공산주의도덕관을 세우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도덕은 가장 순결하고 고상한 참다운 도덕입니다. 공산주의도덕에서 기본핵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지난 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 흐루쑈브와 같은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나 공산주의도덕을 심히 훼손시켰습니다. 흐루쑈브는 쓰딸린을 헐뜯음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선배도 모르고 서로 물고뜯는 사람들인것 같은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첫 사회주의국가의 창건자인 레닌도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모독당하고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의 다른 당들에서도 나타났으며 그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였고 결국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무너지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을 생존해계실 때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심으로써 세상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셔야 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도덕을 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어지럽혀진 공산주의도덕을 국제적범위에서 복구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중앙추모회에서 연설한 사람들이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였는데 군대도 인민도 다 그 결의대로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처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하며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수령님의 뜻대로, 수령님식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공산주의도덕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정치와 사상, 도덕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것과 함께 글도 많이 써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있는데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써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

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갈뿐아니라 리론선전을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은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위력한 사상교양수단입니다. 이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 1, 2, 3부와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을 비롯한 여러편의 좋은 영화문헌들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학습을 잘 조직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 1, 2, 3부가 나왔을 때 해당 일군들이 그 영화문헌을 한꺼번에 학습시키겠다고 하는것을 내가 1부만 먼저 학습시키고 2부와 3부는 수령님의 서거 100일추모행사를 계기로 학습시키도록 하였는데 그렇게 한 결과 영화문헌학습이 아주 의의있게 진행되였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을 만들 때 수령님께서 지난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교시가운데서 한부분을 육성그대로 편집해넣도록 하였습니다. 영화문헌에 수령님께서 하신 교시를 육성그대로 편집하여넣은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화문헌 ≪위대한 생애의 1994년≫을 보면서 수령님의 교시를 육성으로 듣고 더 큰 감동을 받고있다고 합니다. 영화문헌학습과정은 영화문헌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수반 및 저명한 인사들과 상봉≫은 1부와 2부가 나왔는데 앞으로 련속편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다른 나라 수반들을 비롯하여 7만명이 넘는 외국인사들을 만나 사업하시였는데 세계에는 이렇게 많은 외국인사들을 만나 대외활동을 벌린 령도자가 없습니다. 영화문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의 수반 및 저명한 인사들과 상봉≫을 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만들어 올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영화문헌에 대한 학습을 잘 조직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화문헌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는 수령님께서 나와 사업을 토의하시는 화면들을 가지고 만든것입니다. 영화문헌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에 수령님께서 ≪사향가≫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향가≫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부르던 ≪사향가≫입니다.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부르시던 중국노래 ≪소무가≫도 부르신적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소무가≫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였습니다. ≪소무가≫는 중국인민의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반영한 노래입니다.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소무가≫의 가사를 찾으려고 애쓰시다가 몇해전에야 찾으시였는데 그때 너무도 기쁘시여 그 노래를 몸소 부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사향가≫와 ≪소무가≫를 부르시는것을 록음한 테프를 내가 보관하고있는데 그것은 매우 귀중한 재부입니다. 수령님께서 ≪소무가≫를 부르시는것도 영화문헌에 편집하여넣으면 좋을것입니다. 인민들이 수령님께서 ≪소무가≫를 부르시는것을 보면 큰 감동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무가≫가 중국노래이지만 수령님은 위대한 국제주의자이시기때문에 그 노래를 부르신것을 내보내는것이 좋습니다.

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보천보전자악단에서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를 새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그냥 가지고있다가 수령님의 서거 100일을 맞으며 내놓았습니다. 노래 ≪우리는 맹세한다≫는 가사를 명백하게 통속적으로 잘 썼습니다. 이 노래에는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며 사회주의 우리나라를 더 훌륭히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가 잘 반영되여있습니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우리는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조국을 더 부강하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여야 우리의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일수 있고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길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당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고 인민의 생명입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조직사업을 잘하여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대렬안에 그 어떤 이색분자도 끼여들지 못하게 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조직사업과 함께 당사상사업을 실속있게 잘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기본은 주체사상교양입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가자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서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전당, 전민, 전군

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떠나서는 당의 강화발전에 대해서도,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무적필승의 무기입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면 그 어떤 강적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그 어떤 난관도 뚫고 승리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새로운 혁명적경제전략을 내놓은지 1년이 되여오지만 경제사업이 당의 요구대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농업과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는데서 중심을 놓치고 여기저기 력량을 분산시키며 건설을 많이 벌려놓고있는것이 주요한 편향입니다.

수령님께서는 경제문제때문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심려하시다가 돌아가시였는데 어떻게 하나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튼튼히 틀어쥐고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빨리 높여야 합니다. 정무원 위원회, 부들과 당중앙위원회 부서들은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며 특히 농업과 경공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정무원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따져보고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바로세워야 합니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의 기본목표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농업과 경공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세워야 합니다. 농업과 경공업에 힘을 집중하지 않고서는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나갈수 없습니다. 농업과 경공업을 추켜세우자면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도 힘을 넣어야 합니다. 전기가 없이는 비료도 생산할수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지을수 없으며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려놓고있는 건설대상들을 다 따져보고 자를것은 잘라 설비와 자재, 자금을 농업과 경공업 부문에 돌려야 합니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정무원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무원은 나라의 전반적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조직지휘하는 경제사령부이며 나라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당앞에 책임지고있습니다. 경제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정무원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당에서는 정무원이 경제사령부로서 나라의 경제사업을 전적으로 맡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내놓고 모든 사업조건을 지어주었습니다. 정무원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정무원책임제, 정무원중심제를 철저히 실현하여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합니다. 위원회, 부를 비롯한 경제기관들은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정무원에 집중시키고 정무원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풀어나가야 합니다.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지금 경제사업에 일련의 난관이 있는것은 사실이지만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아글타글 애써 일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중요하게 강조하신것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입니다. 나는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며 자기 단위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애도기간에 연백벌안의 협동농장들과 전천군상업관리소, 맹산군을 참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천군상업관리소와 맹산군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일을 잘한 모범단위입니다. 지방에서는 맹산군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널리 벌리고 상업부문에서는 전천군상업관리소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정춘실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오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있으며 아직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으며 미제와 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려면 결정적으로 당과 함께 인민군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

낼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도 다그쳐나갈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현시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문제는 인민군대가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군대입니다.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로서 조선로동당의 기발,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당의 군대로서 당의 위업을 위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다는데 바로 우리 인민군대의 본질적특성과 불패성이 있습니다. 인민군대안에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위업에 충실하며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가 되여야 합니다. 당과 군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 당은 위력을 발휘할수 없으며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군대는 힘있는 전투부대로 될수 없습니다. 당이 없이 군대만으로는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군사명령지휘체계로 군대는 움직일수 있어도 수백만 대중은 움직일수 없습니다.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입니다. 오직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를 이룰때에만 전당, 전민, 전군을 하나와 같이 움직일수 있습니다. 혁명적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혁명군대는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당과 군대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이길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 당풍에 기초한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위업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군민관계를 잘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민관계를 잘 가지는것은 싸움준비의 한고리입니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지 않고서는 적과 싸워이길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유사시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워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사랑하고 적극 원호하게 하며 전민무장화와 전국요새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그 어떤 적도 덤벼들수 없게 우리 나라를 고슴도치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체육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적들과 직접 맞서있는 나라이므로 사격, 권투 같은 체육종목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하며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하는데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력과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시였지만 통일의 그날을 보시지 못하고 서거하셨습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워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다보니 남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은 공화국의 품에 안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비전향장기수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며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기본담보입니다. 우리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책동이 계속되는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해나갈수 있는것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자주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동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은 정치적자주성이 없이 큰 나라들이 하라는대로 하다가 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해오시는 전과정에 일관하게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시였습니다. 지난날 대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르샤와조약기구에도 들고 쎄브에도 들라고 압력을 가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거기에 들지 않고 철저히 독자성을 견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우리 나라가 와르샤와조약기구와 쎄브에 들지 않은것은 천만번 옳았습니다. 만일 우리 나라가 와르샤와조약기구와 쎄브에 들었더라면 어떤 큰 피해를 입었을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은 선견지명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시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도 자주적이고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자!≫라는 구호를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호보다 더 좋은 구호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며 철두철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9돐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기념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주체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영광의 20세기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로 빛나게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의 기치 높이 희망찬 새 세기의 진군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뜻깊은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9돐을 성대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온 겨레의 절절한 소망에 받들려 어둡던 이 나라 강토 위에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행운의 명절이며 인류역사의 앞길에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경사의 날입니다.

우리조국의 재생과 민족번영의 역사로 자주의 새 세기를 창조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힘찬 진군도 성스러운 이 날과 하나로 잇닿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 위에서 새 세기의 첫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 모두는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을 안고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끝없는 경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0여성상 파란만장의 혁명일생을 걸으시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위대한 전환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자주시대의 연대기에 영원불멸할 세계사적 공적을 아로새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풍파 사나운 20세기의 연대와 연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여 온 우리 인민들은 오늘 자신들이 지난날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 분을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 따라 대를 이어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인민 모두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만대에 길이 빛날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20세기는 인류의 생활에서 미증유의 전변이 일어나고 세계정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격동적인 세기였습니다. 세기의 준엄한 동음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전변과 경이적인 사변들은 역사의 각이한 연대들에 출현한 위인들의 활동사와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현대사가 낳은 그러한 위인들 가운데서 만민이 특별한 존경심을 안고 태양처럼 숭배하며 우러러 모셔온 절세의 위인은 조선민족의 영광이신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고 세계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십니다.≫

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활동의 장구한 역사와 비할바 없이 풍부하고 심오하며 거창한 혁명업적으로 보나 시대발전에 미친 거대한 영향력과 한없이 고매한 덕망으로 보나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며 그것으로 하여 20세기는 영광스러운 **김일성**세기로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시대를 향도하는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인간의 운명개척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명시하여주신 사상이론의 영재이시였습니다.

지난 세기 인류사상사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과학적인 사회주의학설에 대한 부르주아반동사상과 각종 기회주의사상의 도전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인민도 사대와 교조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자주, 조선의 넋을 잃고 노예적 굴종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동란과 정신적 빈곤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우리 인민과 인류의 사상정신생활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시고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인간에 대한 완성된 과학적 이해를 확립하고 인간중심, 인간존중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을 새로이 정립한 인류의 철학적 사유의 최대의 전취물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 가장 높은 단계, 최고의 정화로 됩니다. 주체사상을 받아 안음으로서 인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상적 혼란을 바로잡고 역사의 흐름을 자주의 궤도에 올려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의 거세찬 격랑을 일으키며 도도히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우리 인민은 우리의 신념과 주견을 세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 나감으로서 20세기를 우리 조국과 민족의 지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융성번영의 세기로 민족의 존엄과 긍지가 누리에 빛을 뿌리는 영광의 세기로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망국의 수난 속에 역사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조선을 위대한 지도사상의 발원국으로 노예운명에 처해 있었던 우리 인민을 자기의 혁명철학과 혁명사상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존엄있고 슬기로운 인민으로 새롭게 탄생시켜부시고 진보적 인류에게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과학적인 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이론적 공적은 인류사상사와 더불어 영구불멸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 인류 앞에 나선 여러 단계, 여러 형태의 혁명투쟁과 업을 모두 빛나게 수행하는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실천투쟁의 이정표를 확고히 마련하여주신 가장 걸출한 영도의 거장이시고 세계정치의 원로수령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포괄하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빈터 위에서 나라를 일떠 세우는 두차례의 복구건설,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시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실현된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건설하시었습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오랜 역사에는 인민대중의 해방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한 노동계급의 뛰어난 수령들이 있지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이 70성상을 헤아리는 오랜 기간 혁명을 영도하여 당대에 이렇듯 거창하고도 심원한 영도업적을 이룩함으로써 옹근 한세기에 걸쳐 민족과 인류의 혁명투쟁 전반에 거대한 변혁적 영향을 준 걸출한 수령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영도사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비상히 위력하고 생활력 있는 혁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석같이 다져 놓으신 역사적 공적으로 하여 세기의 연대기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꾸리시고 민족번영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주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영도하여오시는 전 기간 건당, 건군, 건국의 위업에 끝없는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어 새형의 노동계급의 당과 혁명무력, 인민정권을 건설하는 독창적인 경지를 개척하시고 귀중한 모범을 창조하시었으며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던 이 땅위에 굳건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일떠 세우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세계적인 정치동란과 경제파동 속에서도 끄떡없이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와 불패의 혁명무력, 강력한 국가정권을 가지고 자립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투쟁을 힘있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체위업완성를 위한 정치, 군사, 경제적 담보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단결과 협력의 사회관계를 확립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자주위업수행의 근본요구입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 행성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갈등과 분쟁의 총성이 그칠 새 없고 인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숭고한 이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뜨거운 육친적 사랑을 베푸시어 온 사회를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결합된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체인민을 사회주의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만드시고 우리 나라를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애, 민족애, 조국애는 남녘의 인민들과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전민족대단결 기치아래 굳게 묶어 세움으로써 오늘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겨레가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함께 세계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었습니다.

값비싼 희생을 당하면서도 다른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신 고결한 풍모와 의리는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 앞에 쌓아 올리신 혁명업적 중에서 특별히 귀중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공적은 혁명위업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어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며 혁명위업 계승문제는 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범한 안광으로 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 필연성과 사활적인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이 중대한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당, 우리 인민은 사상과 영도의 유일중심을 높이 받들고 대를 이어 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확고히 이룩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수령의 혁명사상과 업적이 후세에 말살되고 혁명의 대가 끊어져 쓰라린 진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 사상과 영도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수령의 위업이 충직하게 계승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수령복, 장군복을 안겨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운 것인가를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불멸의 영광으로 빛내이고 있는 혁명사상과 영도업적, 투쟁경험을 그 비할바 없는 진리성과 심오성, 변혁적 의의로 하여 자주시대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종국적 완성을 담보하는 한없이 귀중한 인류공동의 혁명적 재부로 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우리 민족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으신 만고절세의 위인, 혁명의 대성인을 맞이한 것은 역사가 안겨준 최대의 행운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시였기에 오랜 세월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가 낙후와 예속의 질곡을 벗어버리고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일떠서 누리에 존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수억만 피압박, 피착취 근로대중이 자주의 기치 밑에 행복과 진보,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사상과 영도, 덕망으로 20세기 우리 행성을 이끌어 온 혁명의 태양이시였습니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그가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동방에서 살건 서방에서 살건, 인간태양의 위대함과 성스러움을 다 체현하신 우리 수령님을 하늘이 낸 분이시었다고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인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위대한 혁명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민족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어 20세기 연대기에 영구불후의 위훈탑을 쌓으신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만민의 마음속에 천세만세 길이 영생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과 인류를 위하여 쌓아 오신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함께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세기에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특출한 영도실력,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결한 충정을 다 기울이시어 수령영생위업을 최고의 경지에서 가장 빛나게 실현하시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당의 항구적인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면불휴의 사상이론활동과 혁명적 영도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업적은 변함없이 절대적인 진리성과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 자주위업의 투쟁교범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고립압살책동으로 조국이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준엄한 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을 계승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창시, 완성하시어 그 불패의 위력으로 세기말의 대풍랑을 단호히 제압하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으심으로써 20세기를 사회주의 수호전의 자랑찬 승리로, **김일성**세기의 역사적 승리로 빛나게 결속 지을 수 있게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진두에 서시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 나가시기에 우리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으로 강성부흥을 떨쳐갈 것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활로를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백두에서 개척되어 20세기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우리 혁명은 21세기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으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 앞에는 새 세기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해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 어엿한 혁명가로 키워주시고 수령님의 *** 우리 모두는 일심전력으로 일을 잘 하여 통일된 강성대국에서 온 겨레가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그리도 마음써 오신 수령님의 염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염원을 풀어드리고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며 수령님의 영생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장군님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빛나게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투철한 수령관과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중심으



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며 장군님과 생사를 같이하는 열혈의 동지, 신념의 동지가 되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의 천만리 길을 억세게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노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시고 전진시켜 오신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입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나라의 군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전국가적, 전민적 힘을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군사적 담보를 더욱 굳건히 다지며 조국해방선을 금성철벽으로 다져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조국보위정신과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을 자신들의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선군혁명의 새 시대, 21세기에 상응한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는 현존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위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공장기업소들을 현대적인 기술로 대담하고 착실하게 재건, 갱신하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게 하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부문이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혁명적 대고조의 된바람을 일으키며 경공업부문에서 일차소비품과 기초식품생산을 책임적으로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감자농사혁명방침과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이악하게 관철하며 대규모 토지정리와 물길공사를 빨리 다그쳐 질적으로 끝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의 주인다운 자각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새 세기의 첫해농사에서 기어이 풍작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인 21세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방식과 일본새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참신하게 설계하고 대담하고 기발하게 작전하며 통이 크고 완강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과 조직지휘능력을 갖추고 주도성, 창발성,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전진의 돌파구를 패기있게 열어 나가며 한평생 당과 수령을 충심으로 김일, 오중흡동지들처럼 가식과 변심이 없는 충실성을 가지고 위대한 수



령님의 유훈,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세기를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큰 염원이였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 시기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로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였으며 조국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은 오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하고 계시며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해 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발전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의연히 간고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계시며 수령, 당,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기에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뜻깊은 태양절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며 어버이 수령님께 다시 한번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만세!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오늘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을 기원하는 만민의 충정이 하늘땅에 넘치는 상황에서 사무치는 그리움과 열화같은 경모심을 안고 수령님서거 5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아픔과 슬픔을 신념과 의지의 힘으로 이겨내며 수령님 영전에 다진 맹약을 지켜 억세게 살며 싸워온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마음은 이 시각 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태양의 성지로 세차게 굽이쳐가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고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 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숭앙하며 충효일심으로 받들어 조국통일성업을 앞당겨 성취할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불변의 신념과 철의 의지를 담아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불타는 충효속에 맞고 보낸 지난 5년간은 우리 민족과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 만고절세의 위인을 수령으로 모시고 있었는가를 더더욱 절감한 나날이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신으로 파란만장의 시련을 과감히 헤쳐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하고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엮어진 빛나는 연대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80여성상은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20세기를 전설적 위훈과 불멸의 업적으로 찬란히 수놓으시고 거룩하고 위대한 생애를 가장 깨끗하고 완벽하게 장식하신 태양의 빛나는 역사였습니다.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온 겨레와 인류에게 운명개척의 진로를 휘황히 밝혀주시고 역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사상이론의 대가도 수령님이셨고 주체형의 당과 국가, 혁명무력을 창건하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어 조국북반부에 민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 낙원을 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도 수령님이시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시어 조국광복을 이룩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도 수령님이셨습니다.

특히 가장 비범한 선견지명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위업의 종국적 완성과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영도의 승계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신 공적은 만민의 다함없는 경탄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분단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통일된 조국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온갖 노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현명한 영도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따라 거족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빛발로 시대의 향방을 밝히시고 반제반미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자주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류의 투쟁을 고무하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셨습니다.

한평생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오로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이 세상 모든 고난과 시련,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며 민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실현에 헌신분투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사와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사상과 영도도, 덕망과 인품도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 태양으로 높이 모시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체위업은 빛나게 승계완성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빛나게 실현하실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지난 5년간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이어 나가심으로써 선대수령을 받드는 도덕의리와 정치윤리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받들어 모셨으며 태양절과 주체연호, **김일성**헌법을 제정해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장을 펼치신 것은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특기할 대공적입니다.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전대미문의 대공세와 극심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강성부흥하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심각한 난국이 조성된 지난 5년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혁명의 최전선, 사회주의수호의 최전방에 계심으로 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위기로부터 구원되고 세계의 정의는 고수됐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돼 강성대국건설의 도약대가 마련되는 역사의 기적이 창조됐습니다.

오늘 이북이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이 넘치는 무적필승의 강군과 천백배로 다져진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으며 전국, 전민이 경제강국을 향해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리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장엄한 현실은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선군혁명영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역사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5년동안에 그것도 가장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첩된 속에서 단신으로 만고풍상을 헤치시며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내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선양하셨으며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울리신 업적은 천만년을 두고 전해도 다 전하지 못할 불멸의 대공적입니다.

지난 5년간의 실생활체험을 통해 우리들은 밝아오는 21세기는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어려있는 붉은기와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영광된 **김정일**세기, 3천리 강토위에 통일된 강성대국이 우뚝 솟아 세계 만방에 휘황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조선의 세기가 되리라는 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한치의 편차없이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충효와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고 세계가 공인하는 정치원로이시며 가장 걸출한 수령이십니다.

비범한 천품과 불멸의 업적으로 해 만민이 탄복하며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태양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영수로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7천만 겨레의 최대의 행복이고 무상의 대행운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5주기를 맞는 오늘 우리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효일심을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반외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불퇴전의 의지이고 드높은 결의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각계각층 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심이 경향각지에서 막을 수 없는 대하로 굽이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민족해방성전을 힘차게 조직전개할 것이며 조국통일 3대헌장과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통일운동의 열풍을 거세게 일으켜 조국통일의 전환

적 국면을 열어놓음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은 우리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간절한 소망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체88(1999)년 7월8일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 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오늘 우리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7주기를 맞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의 애국민중에게 있어서 지난 7년간은 얼마나 위대하신 만고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셔왔는가를 폐부로 절감하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워온 경모의 나날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과 인류가 낳은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고 20세기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백승의 위훈을 떨쳐오신 영도의 거장이시며 만민을 매혹시키는 특출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20세기의 원로수령이시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겨레와 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자주의 궤도 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시는 인류사적 업적을 쌓으시었다.

20성상 항일대전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광복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땅위에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었으며 미제의 오만한 무력침공을 물리치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었다.

조국북반부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민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숭고한 인간애, 열렬한 동지애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꽃피우신 혁명의 대성인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어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영수복, 장군복을 안겨주신 것은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에서도 특별히 귀중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공적이다.

민족의 분열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온 넋을 깡그리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어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이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 자주위업실현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인류의 태양이시다.

오로지 민족과 민중의 자유해방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해 한평생을 고스란히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도 영생의 모습으로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면서 매일매시각 각계민중들과 외국의 벗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해주신다.

참말로 20세기와 더불어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80여성상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1세기에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심장속에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어버이수령님과 똑같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찬연히 빛나며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7년간 고결한 충정을 기울이시어 수령님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유훈을 실현하는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세계를 경탄시키는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찬란히 수놓아 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시어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태양절과 주체연호,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시어 수령님의 혁명역사가 무궁토록 흐르게 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단신으로 쳐물리치시고 20세기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자랑찬 승리로 빛나게 장식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피눈물의 언덕에서 시작된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어 위대한 승리로 결속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높이 울리시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함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통일노선들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통일위업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었다.

더욱이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어 새 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7천만 겨레에게 안겨주시는 민족사적 대업적을 이룩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 계신다.

하기에 통일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숭배열풍은 이땅 경향각지에서 거세차게 굽이치며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조국통일대행진은 오늘 각계각층 민중의 대중적인 참여속에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우러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도, 민족의 부강번영도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고한 신념에 넘쳐 있다.

우리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모신 크나큰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고 장군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새 세기의 가까운 앞날에 기필코 실천하고야 말 것이다.

주체90 (2001)년 7월 7일
서울

김정일총비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87.7.8)



(평양 주체 87년 7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최고사령부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4돐을 맞이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차수 조명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동지, 조선인민군 대장 현철해동지, 상장 리명수동지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대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 지휘성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최고사령부 지휘성원들은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무장으로 빛나게 완성하고야말 충성의 결의에 넘쳐있었다.



김정일총비서 금수산기념궁전방문 (87.9.9)

(평양 주체 87년 9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9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영남, 리종옥, 박성철, 김영주, 전문섭,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리을설, 홍성남, 백학림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주석의 립상 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경의를 표시하신 다음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대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여 그이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총비서 금수산기념궁전방문 (88.4.26)

(평양 주체 88년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창건 67돐에 즈음하여 군대의 지휘간부들과 함께 25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석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리을설원수, 김영춘총참모장과 김일철인민무력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리용무부위원장, 연형묵위원, 조선인민군 차수들인 백학림, 김익현, 리하일, 전재선, 박기서, 김룡연과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군종, 병종 사령관들이 동행하였다.

주석의 립상 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그이께서는 군대의 지휘간부들과 함께 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대의 지휘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총비서 금수산기념궁전방문 (88.7.8)

(평양 주체 88년 7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8일 아침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서거 5돐을 맞이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인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 등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동행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 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계단을 오르시여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김정일총비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89.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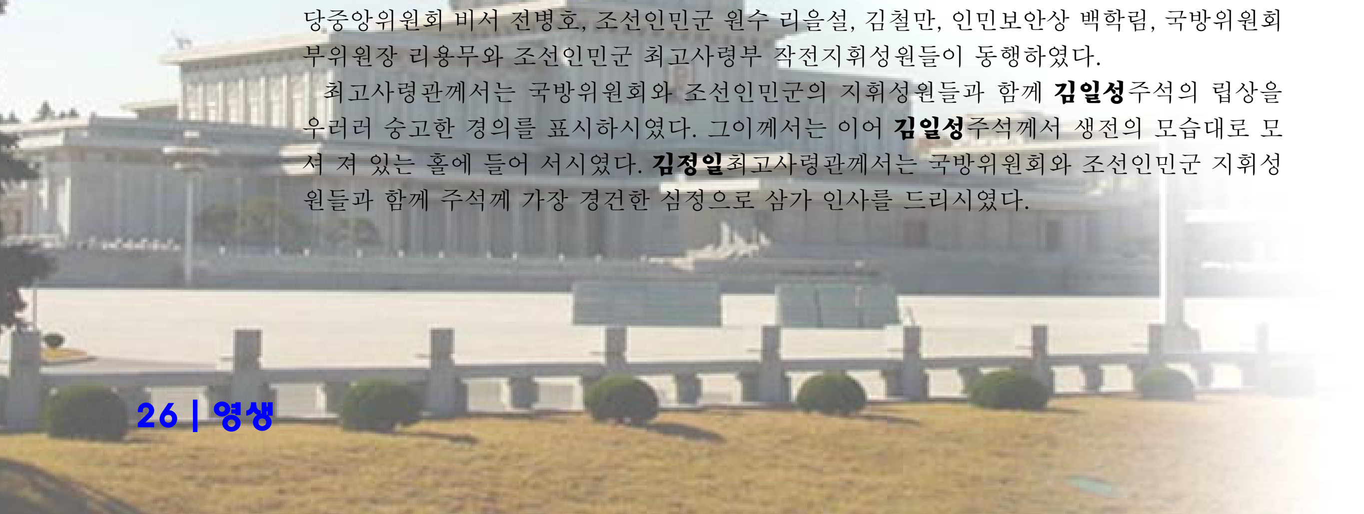
(평양 주체 89년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15일 0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상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들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전병호,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 김철만, 인민보안상 백학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용무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의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대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89.7.8)



(평양 주체 89년 7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7월 8일 0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의 서거 6돐을 맞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김영춘총참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일철인민무력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리을설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리용무차수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89.10.10)



(평양 주체 89년 10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10일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이날 금수산기념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영남, 홍성남, 김영춘, 김일철을 비롯한 당가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당,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동행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 량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기, 조선인민군 군기들이 세워 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 져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총비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김일성주석께 경의 표시 (90.1.1)

(평양 주체 90년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새해 주체90(2001)년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1일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은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인 김영남,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리을설, 백학림, 홍성남, 전병호, 한성룡, 계응태, 김철만,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김국태, 김중린, 리용무, 김용순, 조창덕, 곽범기, 김윤혁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등이 동행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 금수산기념궁전 방문 (90.7.8)

(평양 주체 90년 7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용무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국방위원회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일영수의 5년위업과 민족의 운명

구국전선 / 자유기고가 김 성 철, 주체89, 2월 11일

유구한 민족사에서 5년은 일촌광음같은 순간이다.

그러나 이 5년에 우리 겨레는 5천년 민족사상 일찍이 경험한적 없는 감동과 환희를 만끽했다.

지난 5년은 되새겨볼수록 만고절세의 위인을 모신 영광과 함께 감사의 마음 억제할 수 없다.



민족의 태양 영생위업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5천년 단군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모셨던 민족의 태양이셨다.

김일성주석은 다 꺼져갔던 민족의 운명을 건져주신 광복의 태양이셨고 8.15후 이북에 민중의 참세상을 세우신 건국자이셨으며 7천만 겨레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겨레의 거룩한 어버이이셨다.

온 민족이 그래서 주석을 하늘로 믿어왔다.

우리 이남민중은 비록 미국의 식민지민으로 짓밟혀오면서도 주석께 운명을 맡긴 것을 천하대행운으로 여겨왔었다.

우리 민중은 심혼을 다해 주석을 믿고 따랐다.

그런데 그처럼 그리워하고 믿고 따랐던 **김일성**주석님께서 급서하셨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에 온 민중은 얼혼을 잃고 말았었다. 참으로 주석의 서거는 하늘의 태양이 꺼진 것 같은 망극지통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비통함을 가셔주시며 주석의 자손으로 무궁복락하고픈 민족의 염원을 성취시켜 주신 분이 영명한 **김정일**영수이시다.

주체83(1994)년 7월 19일 주석영결식날이었다.

영결식에 처음으로 나온 태양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주석의 영상사진은 민족을 일으켜세우는 거대한 힘으로 됐다. 주석의 태양상소식에 침통해있던 경향땅에 환희가 물결쳤다.

김정일영수께서는 주석의 태양상으로 주석께서 영생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주석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태양의 거실－금수산기념궁전을 꾸리셔 주석과 온 겨레의 영원한 만남을 이루게 해주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의 구호제시로 주석의 영생위업을 튼튼히 마련하신 **김정일**영수이시다.

주체87(1998)년 9월에 있은 북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김정일**영수의 충효의 정치상을 국제의정사에 기록했다. 그때 회의에서는 **김정일**영수께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실 것이라는 세인의 예상을 뒤집고 **김일성**주석을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선포하시고 ≪**김일성**헌법≫으로 명문화했던 것이다.

김정일영수께서는 태양절과 주체연호의 제정시행으로 **김일성**주석을 모셨던 영광을 영원토록 구가하고 **김일성**민족사가 세세연년 흐르기를 바라는 겨레의 염원도 풀어주셨다.

김정일영수께서 계셔 **김일성**주석의 탄신절은 주석께서 생존해계시던 때와 다름없이 뜻깊고 성대히 기념되고 주석의 역사는 공백이 없이 더 줄기차게 흐르며 이어지고 있다.

김정일영수의 5년충효사는 실로 자욱자욱이 보석처럼 빛을 뿌린다.

세계에 기념비가 많아도 **김정일**영수께서 세우신 **김일성**주석영생위업의 충효비보다 더 빛나는 기념비는 없을 것이다.

민족의 자주권 수호위업

이북의 지난 5년은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린 대시련기였다.

김일성주석서거라는 뜻밖의 국상을 당한 북의 불행을 기화로 미국은 이북내부의 ≪혼란≫을 꾀하며 대북압살총공세를 가해나섰다. 미국은 ≪21세기 패권전략실현의 교두보인 한반도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그 기회에 장악하려고 획책했다.

미국의 공격은 맹렬했다. ≪유엔≫을 포함한 정치외교적 공세, 전연과 공중, 해상에서 막대한 전력을 투입한 물리적 위협, 대북경제제재 등의 질식고사작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한 내부와해전략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발동해 사면팔방에서 입체적 맹공을 가했다. 그것은 세계언론이 평한바 그대로 ≪금세기 초유의 대공세≫였다.

이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북을 민족의 참조국으로 여기며 애오라지 북에 희망을 얹고 살아오는 우리 민중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지구촌사람들도 숨죽여 북미대결을 지켜봤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기우였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일이 앞장섰으며 서방이 공모동조한 대북총공세에 북은 강경으로 대응하며 대방을 궁지와 수세에 몰아넣었다.

북은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을 존엄높은 자주정치로 꺾었고 ≪개혁, 개방≫의 ≪자유화바람≫을 붉은기 열풍으로 몰아냈다.

북의 정치체제는 일사불란해졌고 당, 군, 정, 민의 일체화는 더 강고해졌다.

조국광복 50주년경축식, 98년의 50회공화국창건절 경축열병식과 군중시위,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회의와 수많은 병종 및 부문별 주요 대회들은 **김정일**영수를 수뇌로 하는 전민의 철통같은 단결, 북의 정치적 위력의 일대과시였다.

미국의 ≪힘의 논리≫도 북에는 통하지 않았다.

미국이 북침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27-98≫로 위협할 때 침략세력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폭탄선언으로 기를 꺾었고 99년 6월 서해도발사건을 발판으로 제2의 발칸전을 터뜨리려던 미국의 기도도 초전제압했다.

지금도 미국은 60만의 지상군과 2백척의 함선, 1천2백대의 항공기 등 발칸전에 투입됐던 무력의 1백40여배에 달하는 전력을 항시적 대기상태에 두고도 감히 대북공격을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냉전종식후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굳힐 야심으로 도처에서 강권을 휘두르며 저항세력은 무자비하게 눌러온 미국이 북에 대해서만은 털끝하나 다치지 못하였다.

미랜드연구소의 어느 연구원은 ≪미군부내에서 북공격론을 자멸론으로 평하는 목소리가 높다. 북의 지난 5년에서 이북의 실제적 힘을 판별했기 때문이다. 북은 미국과의 5년간의 무혈전쟁에서 완승한 셈이다≫라고 했다.





명장의 진가는 난시에 판별된다

김정일영수는 가장 엄혹한 형세에서 가장 강한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셨다.

김정일영수는 호국을 국사중의 국사로 여기신다. 영수께서는 호국을 망국민을 자주민으로, 은둔국을 광명국으로 올려세우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잇는 대업으로 여기시고 호국에 총력을 경주하시며 선군정치, 선군영도의 5년장정을 이끌어오셨다.

한번의 명절날, 하루의 휴식일도 없이 사나운 비바람, 차거운 눈비를 맞으시며 해마다 수만리, 최전방과 낙도, 산간오지의 군부대 등 3백 수십곳을 시찰하시며 북의 정치사상적 보루, 경제적 보루, 군사적 보루를 철벽으로 다져오신 **김정일**영수이시다.

김정일영수의 호국장정으로 북은 5년간 자위적 무력건설, 전민중적, 전국가적 방위체계확립, 군민의 정치사상적 우월성발양, 후방의 강화 등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우뚝 치솟았다.

세상에는 무공과 무훈을 떨친 장군들이 허다하다.

그러나 힘과 힘의 치열한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하면서도 군사적 쾌승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완승을 이룩하신 천하제일명장은 오직 **김정일**영수 뿐인줄 안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을 수호함을 무공중의 무공으로 이른다. 참으로 민족멸살의 위기에서 7천만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5천년 역사국을 빛내이신 **김정일**영수의 대공적은 자자손손 길이 칭송되며 전해질 것이다.

강성부흥국 창출위업

이북의 지난 5년은 경제와 민생에서도 유례없이 힘겨운 나날이었다.

그러나 북은 지난 5년간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세계를 놀래우는 신화적 기적을 창조했다.

북에 대한 미국의 경제고사작전은 참으로 악착했다.

미국은 북이 겪게 된 경제난국을 최대한 악용했다.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대북도발로 북이 경제와 민생에 관심할 수 없게 하려고 획책했다. 북의 자립경제체제를 약화시키면서 식량난을 심화시키고 교역과 수출입선을 차단하면 구경에는 자기의 체제를 지탱해내지 못할 것으로 타산한 미국이었다.

북의 고난은 외압에만 있지 않았다. 전례없는 자연재해는 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미국의 어느 인도주의단체가 ≪보통의 상식으로는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라고 한 바도 있지만 참으로 북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서방의 매스콤은 때를 만난듯이 북의 ≪위기설≫을 요란스레 광고했다. 미국은 북과 경수로협약을 체결한 것도 ≪경수로건설계약시일 만료전에 북이 붕괴되리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고약스레 지껄였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곤경에 처한 것은 도리어 서방이고 무너진 것은 이남이었다. 미국이 몰아온 대금융한파로 이 사회는 경제대란, 민생대란에 깊숙이 빠져들어 갔다.

이북만이 부흥에로 도약했다.

북과 이태리가 외교관계를 갖기로 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 북에서는 공업약진과 농업증진의 봉화가 타오르고 경제성장의 동음이 힘차다.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 안변청년발전소, 4.25여관(2만명 수용능력),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적인 국토정리, 광명성제염소(동해안의 함경남도 금야군소재), 평양-남포고속도로의 건설 등 대건설물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다. 또 수많은 중소규모발전소들이 도처에 건설되고 산소열법에 의한 제철, 석탄지하가스화의 성공 등 경제활성화의 도약대가 튼튼히 마련된 북이다.

북은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요하는 과학기술중시정책으로 괄목할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98년 8월 ≪광명성≫위성의 성공적 발사는 북이 강성부흥의 궤도에 진입했으며 세계 선진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을 지구촌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제부흥국으로 키돋움하는 북의 위용을 두고 일본에서까지 ≪미구에 아시아의 첫번째 용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놀라움과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인류사에는 강성과 부흥을 뽐내던 나라들이 난국앞에 넘어져버린 사례는 많아도 이북처럼 전화위복으로 부흥의 지평을 연 예는 없는 줄로 안다.

어느 민족이나 강성부흥을 원한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위인을 모셔야 한다.

김일성주석의 뜻을 받드셔 주석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시려는 **김정일**영수의 고결하시고 위대하신 충효경륜에 의해 북의 강성부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 모든 것을 주석식으로, 이것이 **김정일**영수의 좌우명이고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내세우신 주석의 구상을 꽃피워 모든 것이 흥하고 부러운 것 없는 부강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 영수의 의지이다.

그래서 주석서거후 맞게 되는 첫 설인 주체84(1995)년 1월 1일 주석의 전사,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갈 것을 호소하시고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고난의 행군≫, 현상유지가 아니라 비약을 향한 ≪강행군≫을 구호로 제시하셔 이북민을 힘차게 일으켜세우신 **김정일**영수이시다.

이북의 북단 자강도와 양강도를 비롯한 전국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통해 선군정치, 선군영도로 경이적인 창조물을 이뤄내는 특유의 정치술과 영도술로 강성대국의 활로를 여신 **김정일**영수이시다.

참으로 **김정일**영수는 강성의 창조주이시고 부흥의 선도자이시다. 영수께서 계셔 강성번영하는 이북이다.

승승장구하는 북의 모습에서 이남민중이 큰 힘을 얻고 그에 갈채를 보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 민중은 북의 지난 5년 역정에서 통일조국의 창창함을 보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인, 정치인과 재력가 , 20대의 청년으로부터 팔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각계각층이 그칠새없이 북행길에 오르는 것도 **김정일**영수의 강성부흥의 경륜이 꽃피고 열매맺는 이북에서 민족의 참모습과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심은 천심일진대 민심은 이미 민족의 태양 **김정일**영수를 통일강성번영국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7천만 겨레가 만세의 환호성을 터칠 그날에 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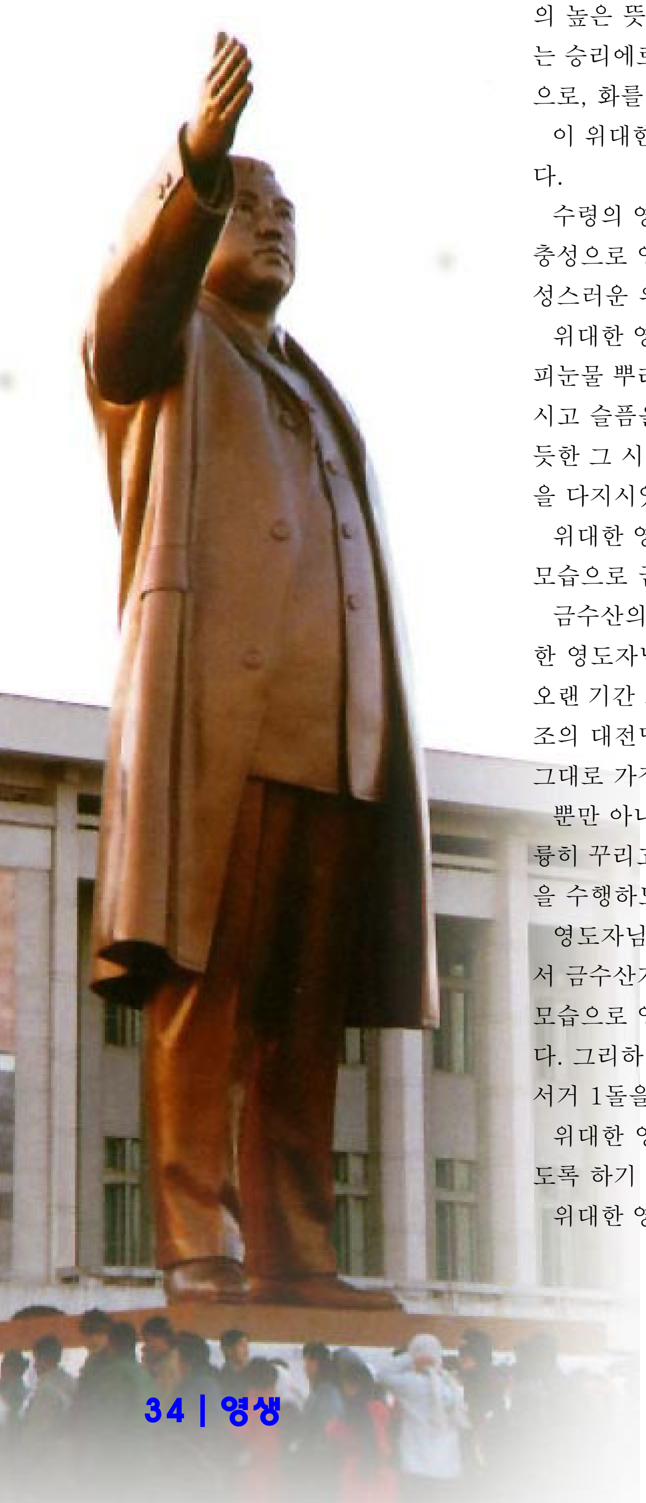
민족의 운명과 북의 5년 음미해 볼수록 그 의미 참으로 깊다.

거창한 5년위업을 통해 민족의 운명에 창창한 내일을 마련해주신 민족의 태양 **김정일**영수께 온 겨레는 감사의 인사 뜨겁게 드린다.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실현

구국전선 / 김 세 찬, 주체90, 4월 11일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이북은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보루인 이북을 고립,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였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사정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상황도 매우 어려웠다.

이 준엄한 정세와 역경 속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어 선군정치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전투를 빛나는 승리에로 조직영도하시었다. 하여 영도자님께서는 지난 6년간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민족사에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 오시었다.

이 위대한 6년간은 무엇보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충성의 6년이었다.

수령의 영생위업은 건국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생존시나 다름없이 충성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과 절통한 비분으로 하여 피눈물 뿌리며 모진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이북 민중들을 손잡아 일으키시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도록 하시었으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 시각에 경애하는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숭고한 충성의 결심을 다지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 11일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금수산의사당에 정중히 모실 것을 발기하시었다.

금수산의사당은 이북 민중의 한결같은 소망과 절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삼가 지어 올리도록 하신 주석님의 집무실이며 주석님께서 오랜 기간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 세계 자주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 창조의 대전당이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주석님을 생존의 모습 그대로 가장 정중하고 경건하게 모시어 주석님께서 영생하시도록 하시었다.

뿐만 아니라 영도자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개관하며 금수산기념궁전지구를 더욱 품위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전군, 전민을 이끄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무려 30여차의 현지지도와 400여차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시고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1995년 7월 8일 주석님 서거 1돌을 맞으며 금수산기념궁전 개관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또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

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에는 천년만년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주석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이북민중과 온 겨레의 드팀없는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어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영원히 빛나고 주석님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1997년 7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공동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결정서는 주석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연호를 제정한다는 것과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김일성**헌법을 채택하고 경애하는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었다.

1998년 9월 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 영도자님께서는 새로 채택될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 라는 것을 성문화하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주석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입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이 구호에는 주석님의 주체사상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거머쥐고 그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영도자님께서는 주석님의 유훈교시를 창조와 건설의 대강으로 여기시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영도자님께서는 해마다 첫 사업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석님을 찾아 뵙고 경건히 인사를 올리고 주석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맹세를 다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었고 세월을 이어 계속되는 현지지도의 길위에서는 녹음으로 주석님의 교시를 들으시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방도를 구상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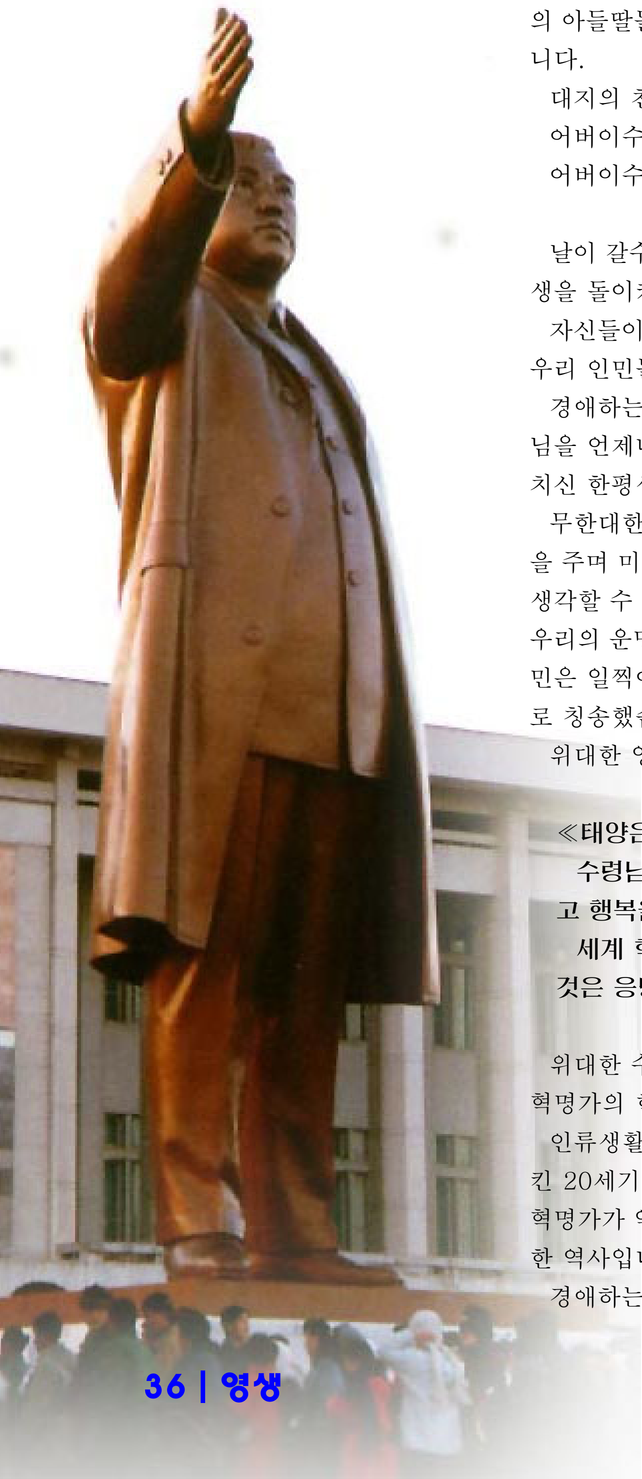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영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쉬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석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시었다. 영도자님께서는 당과 군대, 정권도 주석님의 생전의 뜻대로 강화시키시고 경제, 문화건설도 주석님의 유훈대로 진행해 나가시었다.

실로 지난 6년간은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충성의 6년이었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태양의 모습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 4월 15일.

끝없는 충성의 마음 드놀지 않는 맹세의 마음을 안은 맹세의 물결이 만경대로 만수대 언덕으로 대하처럼 흐르고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찾아온 친선의 예술사절들이 다채로운 공연무대를 펼쳐 놓은 태양절.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애지중지 키워주신 수령님의 아들딸들이, 이 나라 인민들이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경건히 옷깃을 여밉니다.

대지의 천만꽃도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앞을 다투어 피어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버이수령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 꽃피는 4월과 더불어 영생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한생을 돌이켜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셔왔는가를 가슴 뜨거이 절감하는 우리 인민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언제나 태양에만 비기며 수령님의 거룩하신 한평생을 태양의 위업을 펼치신 한평생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무한대한 열과 빛, 비길데 없는 인력으로 세상만물에 생명을 주고 삶의 활력을 주며 미래의 환희를 주는 태양. 태양이 없는 우주, 태양이 없는 생의 환희를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떠나서 내 조국의 영광과 존엄도, 우리의 운명도, 삶에 대해서 한순간도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일찍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태양의 존함으로 받들어 모셨고 태양의 노래로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태양은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빛을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정치사상과 정치적 영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을 인민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인류를 위하여 바치신 가장 걸출한 혁명가의 한생, 절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이었습니다.

인류생활의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킨 20세기를 찬란히 빛내이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간이 걸을 수 있고, 혁명가가 엮을 수 있으며, 노동계급이 창조할 수 있는 역사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구한 기간 준엄한 세

상풍파를 한 몸으로 헤치시며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으며 공산주의자의 빛나는 삶을 가장 뜻 깊이 마무리하신 영웅중의 영웅이십니다.

위대한 사상이론, 비범한 영도력, 고매한 인덕으로부터 뛰어난 인품과 ****, 검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와 거룩한 영상은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걸출한 위인상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빛나시며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룩하신 태양의 업적으로 위대합니다.

우리는 오늘 온 세상에 떨치는 사회주의 내조국의 존엄, 우리의 자주적 삶의 영애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가슴에 뜻깊게 새겨 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 앞에 쌓아 올리신 무궁번영 할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 속에 빛나는 내 나라, 내조국의 새 역사. 그 위대하고 긍지높은 역사 속에 우리 인민의 자주적 삶이 탄생했고 우리의 행복과 존엄이 살아나고 가꿔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조국과 민족의 어버이로 모셨기에 자기의 삶과 운명에서 세기적 번영을 이룩하고 역사의 주인으로 시대의 개척자, 창조자로 그 존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 뛰어난 재능과 강인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이 땅에 살아온 우리 인민. 재능도 있고 꽃피운 문화도 찬란하지만 운명을 지켜주고 삶을 빛내어 줄 진정한 인민의 수령, 삶의 태양을 모시지 못해서 저 수천년 압제와 천대에 시달리며 역사의 기슭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착취와 전횡속에서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다가 끝내는 외세의 총칼에 국토를 도륙당하고 나라도 주권도 삶의 권리도 깡그리 빼앗겼던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그 한을 풀길이 없어 이국의 하늘 아래서 배를 갈라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고 원수의 우두머리에게 총탄도 던져 보았으며 3.1광장에 떨쳐나서 목이 터지게 독립만세도 불러본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드리운 비운의 구름은 가셔지지 않았고 인민은 운명의 햇빛을 목마르게 기다렸건만 가슴속에 한 가닥 햇빛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동서고금의 어느 역사, 어느 시대에나 생명의 구원자, 삶의 태양을 기원하지 않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태양을 그리고 햇빛을 갈망한 그런 인민은 없었습니다.

인민의 간절한 염원, 민족의 갈망 속에 마침내 삼천리조국강산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었을 때 이 땅은 얼마나 크나큰 환희로 설레었습니까.

수천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태양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지난날 망국노로 천대받고 수모당하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긍지 높은 **김일성**민족으로, 세계지도에서 빛마저 잃었던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엄높은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거연히 솟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대륙마다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습니다.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엔 자기의 건국과 역사를 대표하는 이름있는 정치가들,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위인도, 그 어느 정치가나 명장도 자기의 한평생에 우리 수령님처럼 그토록 커다란 업적과 세기에 빛나는 위업을 이룩한 예는 없었



습니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신 강철의 영장, 두차례의 간고한 사회혁명을 수행하셨으며 남들이 백년이 걸려도 일떠 설 수 없다던 빈터와 폐허 위에서 두차례의 복구건설을 단행하시어 이 땅위에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 세우시고 융성번영의 새 시대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 시대와, 먼 미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탁월한 영도력과 고매한 인덕,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위대한 당, 존엄있는 인민, 무적의 강군을 세우신 경애하는 수령님.

세상에 위인을 칭송하는 노래가 아무리 많다해도 그 노래선율을 다 이어놓고 칭송의 문장을 다 합친다하여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다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한없이 그리며 위대한 태양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심장으로 부릅니다.



행복한 나날에도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따라 불렀고 준엄한 날, 시련의 날에도 만주벌 눈바람 속에서 밀림의 긴긴밤을 조국광복의 그 날에로 이어오신 어버이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역사의 준령을 헤쳐온 우리 인민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노고의 한평생이 가슴에 사무쳐와 저도 모르게 눈굽이 젖어들고 이 땅에 남기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하도 크고 위대한 것이어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꽉 차오릅니다.

사회주의 조선.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평생의 역사가 있고 한생의 업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사회주의조선의 건국시조이시며 그 자랑스런 역사의 개척자, 창조자이십니다.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지원 의 사상, ***의 사상, 두자루의 권총을 유산으로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준엄한 시대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무궁번영할 행복과 복락의 터전, 사회주의 조선을 거창한 유산으로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한 모습, 막강한 국력과 무궁무진한 힘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김일성**민족의 자자손손을 위하여 천만배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어버이수령님께서 뜨거운 사랑과 인덕으로 품어주시고 키워주신 위대한 인민. 수령님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필승의 기질을 그대로 체현한 무적필승의 우리 군대.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김일성**조선, 사회주의조선의 만대번영을 위해서 남기신 가장 위대한 유산, 수령님의 한생의 업적이셨던 재부중의 재부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값있고 존엄있는 유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태양만이 남길 수 있는 유산, 태양의 생애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재부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유대한 유산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늘 위대한 태양의 위업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의 노고 속에 이룩하신 이 불멸의 유산을 안으시고 내나라 내조국을 온 세상에 떨쳐 가시려는 것이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신념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강위력한 당과 국가, 군대가 있기에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우리는 사회주의위업도 조국통일위업도 반드시 이룩할 수 있으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의 드놀지 않는 배짱이고 담력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만이 계승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의 유산을 무기로 하여 태양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돼서 시대를 떨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정치철학,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필승의 배짱과 담력을 지니시고 풍파 사나운 시대의 앞장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승리에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회주의건설도 조국통일도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다 된다는 드놀지 않는 신념을 안으시고 강성대국의 진격로를 열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시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는 성스러운 투쟁도 신심 드높이 영도해 나가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품들여 키우시고 내세워주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행복과 문명의 상상봉에 올려 세우시기 위하여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무적의 우리 군대를 백전백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여 내나라 내조국의 존엄, 우리 사회주의와 인민의 자주적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사회주의붉은기 진군을 앞장서 헤쳐가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신념과 의지, 그 불철주야의 노고와 무비의 헌신성에 사회주의 존엄이 지켜지고 태양의 위업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자주적 삶이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첨예하고도 심각한 대결의 전초선에서 혁명을 이끌어 승리에로 내달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모습에서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시기에 태양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신념, 이 의지가 철석으로 다져졌기에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이 땅이 천만번 뒤번져진데도 태양은 꺼지지 않으며 태양의 무한대한 열과 빛은 우리의 삶과 운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의 4월, 조선의 4월의 하늘가에 태양은 더 뜨겁게 더 열렬하게 작열하며 누리를 밝히고 대지를 감싸 안습니다. 그 뜨거운 햇발은 그 어떤 광선도 검은 구름도 몰아내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영원한 삶의 자양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계시어 경애하는 수령님은 만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태양의 위업을 이으시어 이 땅에 반드시 사회주의 승리의 미래를 앞당겨 오시리라는 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나라 내조국은 영원히 **김일성**조선으로, 우리 민족은 자자손손 **김일성**민족으로 존엄과 영광을 떨쳐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의 태양 **김일성**동지는 영생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체연호에 대한 생각

사가 김모씨의 글



1912년 4월 15일, 이날은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인류의 태양으로 탄생하신 뜻깊은 날이다. 우리 민족사엔 수많은 명절들이 있지만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이날처럼 의미 깊은 명절은 없다.

되돌아보면 20세기 초에 우리 민족사는 기구한 운명으로 얼룩져왔다.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 존엄과 자유를 빼앗겼고 내 민족의 말과 글, 문화와 역사도 빼앗겼다.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 빼앗겼다. 당시를 회고하며 한 재야인은 망국, 망족, 망인의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 우리였다고 말했는데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러한 우리 민족이 바로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태양민족의 고고성을 울리며 새로운 운명전환의 무대에 들어섰다. 우리 민족은 그분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 민족재생의 광명을 받아 안았고, 그분께서 치켜올리신 항일대전으로 조국광복을 맞이하였다.

말그대로 우리 민족이 맞게 된 **김일성**시대는 새로운 현대조선의 탄생, 새로운 태양민족의 탄생을 안아온 영광의 시대였다. 그러니 어찌 **김일성**주석님을 우러러 태양민족의 시원을 열어 놓으신 하늘이시라고 칭송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참으로 주석님의 탄생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대행운이고, 대영광이고, 대자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1997년 7월 3일, 주석님의 혁명적 생과 불멸의 업적을 ****그분의 탄생일 **** 그분의 탄생년인 190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제정했다. 참으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일대기가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나도록 하려는 웅심 깊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되돌아보면 지구촌에는 국가의 창건일을 원년으로 하는 건국연호도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 계기를 원년으로 하는 정치연호도 있었다. 그러나 위인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연호를 제정한 나라는 없었다. 실로 주체연호는 그 모든 것이 우월한 새로운 유형의 연호로써 우리 민족만이 받아 안을 수 있는 최대의 특전이고 최상의 영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일을 맞고보니 그분의 영생을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주체연호를 제정하시어 주석님을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리게 하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끓어 번진다.

그렇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의 수천년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역사는 천세만세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김정일총비서는 충효의 화신

(평양 주체 87년 5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캄보쟈문화예술상 누트 나랑은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개척하시고 그를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공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의 영생의 모습을 뵈옵고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끝없이 흘러드는 사람들의 물결을 보면서 나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김정일**동지의 충효성에 깊이 탄복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김정일**동지를 수령을 받드는데서 최고의 귀감으로 칭송하며 그이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있다.

인류력사에는 충신들이 적지 않았지만 **김정일**동지처럼 선대수령을 위하여 세상에 유일무이한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과 같은 기념궁전을 마련한 그런 세계사적업적을 이룩한 충직한 후계자는 동서고금에 없다.

김정일동지는 선대수령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모시는 충효의 화신, 도덕의리의 화신이시다.

위인이 받으신 최상의 표창

(평양 주체 88년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두산 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이 송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탄생 50돐(1992. 2.16) 에 즈음하여 지으신것이다.

생전에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위인상에 감탄해마지 않으신 주석께서는 그이께 최상의 영예를 안겨주고 싶으시였다. 그러나 **김정일**동지의 겸허성으로 하여 주석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주석께서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그이의 탄생 50돐에 자신의 성의가 깃든 선물들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석께서는 송시를 친작하시고 귀금속공예품 ≪백두밀영의고향집≫과 옥돌조각품 ≪조선의 기상≫, 수예품 ≪주체의 태양≫을 마련하시였다.

귀금속공예품 ≪백두밀영의 고향집≫은 정일봉을 배경으로 백두산고향집과 그 주위에 공



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쓰신 구호나무들, **김정일**화, 진달래 그리고 한그루의 락락장송을 형상하였다. 또한 옥돌조각품 ≪조선의 기상≫은 지구의를 둘러싸고 타래쳐오르는 구름으로 수자 2와 천리마를 선두로 16필의 말이 구름을 타고 날으는것을 형상하였으며 수예품 ≪주체의 태양≫은 **김일성**화, **김정일**화, 목란꽃을 중심으로 130여개 나라의 국화를 넓게 펼쳐놓은 백화만발한 화원속에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두 분의 영상을 모시였다.

선물들에는 시대와 력사 앞에 쌓아올리신 후계자의 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그이의 만수무강을 바라시는 주석의 념원이 뜨겁게 반영되여있다.

이 축하선물들은 주석께서 **김정일**동지께 베푸시는 가장 값높은 표창이였다.

김정일총비서칭송, 태양회

(평양 주체 88년 4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구국의 소리≫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태양회 회원 남혁이 태양절을 맞으며 쓴 ≪충효의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김정일**령수는 력사상 처음으로 충효의 리념을 밝히시고 충효의 실천으로 이북에 충효의 나라를 세우신 충효의 태양이시라고 썼다.

그는 충효의 태양은 충효의 빛으로 세계를 밝힌다고 하면서 충효의 빛은 충효의 리념이라고 지적하였다.

글은 **김정일**령수께서는 충성과 효성은 다같이 수령을 모시고 따르는 전사의 품성이며 충성속에 효성의 의미도 포함되여있지만 충성의 도덕의리적면을 강조하는 뜻에서 효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 개념부터 새롭게 정의하셨다고 썼다.

글은 그이께서 처음으로 충효의 리념을 정립하신것은 인류사상사에 쌓으신 불멸의 기념비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충효의 태양은 충효의 열로 뭇사람들을 감화시킨다고 하면서 충효의 열은 충효의 실천이라고 썼다.

글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김정일**령수의 충효는 동서의 어느 사화에도 없고 사서에도 없는 참충효의 최고정화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주석의 생존시 주석옹위의 새 충효사를 수놓으셨으며 주석의 서거이후엔 주석영생성업의 새 충효비를 세우셨다고 썼다.

글은 충효의 태양은 음지도 없고 동토대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밝음을 주고 따스함을 준다고 하면서 이북은 충효의 태양이 가꾸어놓은 충효의 화원이라고 지적하였다.

글은 **김정일**령수께서 바라신다면 북방의 고산등벌 농촌군이든 외진탄광, 광산이든 가림없이 수도 평양의 처녀들도, 각지 제대병들도 탄원진출하는 모습은 이북이 모든 군민이 그이의 의지로 호흡하고 행동하며 그분을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하는 행성에 유일무이한 충효국임을 보여준다고 썼다.

글은 이북의 이러한 현실은 **김정일**령수의 충효정치의 소산이며 그결과 물이라고 썼다.

필자는 21세기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 인류가 위대한 **김정일**령수를 따르는 충효의 세기로 될것이라고 썼다.



당과 수령을 한결같이 따르는 마음에 기초한 일심단결

로동신문



(평양 주체 89년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조선에서의 일심단결은 전체 인민이 수령을 한결같이 그리며 진심으로 따르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다져지는 가장 공고한 단결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인민이며 자나깨나 그이만을 그리며 한생을 살아가는 충직한 인민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그리며 한결같이 따르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풍모는 그이를 뫼옵는것을 최대의 영광,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고 마음속 사연도, 깊은 속생각도 그이께 다 터놓고 사는데서 과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래 ≪기다렸습니다≫를 즐겨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나깨나, 기쁠때나 어려울때나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것이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오늘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자기 령도자에게 진심이 어린 편지를 수많이 올리는 감동적인 화폭이 끊임없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따르는 조선인민의 풍모는 또한 모든것을 다 바쳐 그이를 결사옹위하는데서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조선인민은 오늘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영웅서사시를 수놓아 가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자기 령도자의 초상화를 끝까지 보위한 당의 참된 전사를, 령도자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최대의 정성을 다하는 참된 충신, 효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것은 조선인민의 꺾일줄 모르는 신념과 지조의 높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신문은 당과 수령을 한결같이 그리며 따르는 조선인민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써도 흔들어놓을수 없고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

(평양 주체 89년 9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은 1970년대에 주체혁명위업계승문제, 후계자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에서는 혁명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객관적조건이 성숙되였다. 60년대 후반기부터 7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시기 조선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오신 혁명위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53(1964) 년 6월부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당, 국가, 군대를 보다 강위력하게 건설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문학예술혁명을 일으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온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단합시키시였다.

위대한 사상리론가, 정치가, 군사가,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그이의 령도자적천품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한 인민들과 전체 당원들은 이미전부터 그이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 친근하게 부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인민들은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충성과 흠모의 마음을 담은 송가들을 지어 널리 불렀으며 70년대초에 이르러서는 그이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것을 바라는 청원서와 편지를 당중앙위원회에 수많이 보내여 왔다.

이러한속에 주체63(1974) 년 2월에 소집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후계자문제와 관련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김정일**령도자를 수령의 후계자로 높이 추대하였다.

조선로동당은 당제6차대회(1980. 10) 에서 혁명위업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을 긍지높이 총화하였다.





조선로동당력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 불멸의 로작

(평양 주체 89년 10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2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발표 5돐에 즈음하여 개인필명의론설을 실었다.

주체84(1995) 년 10월 2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수령의 당건설위업완성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 준 위대한 강령이다.

여기에는 **김일성**주석께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여 있으며 영원히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빛내여 나가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 져 있다.

신문은 지난 5년간 조선로동당이 **김일성**주석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어 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당건설사상과 리론이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되여 조선로동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로, 광범한대중속에 깊이 뿌리 박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불패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가져다 준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로작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언급하면서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는데서 힘 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놓으신 조선로동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그이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되여 당과 인민의 혈연적련계가 더욱 강화된데서 과시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수령결사옹위는 실천의 구호

로동신문

(평양 주체 90년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

11일부 ≪로동신문≫은 오늘 수령결사옹위는 조선인민의 생활과 투쟁과 떼여 놓을수 없는 확고부동한 기본정신, 실천투쟁에서 발휘되는 전 사회적인 풍모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수령결사옹위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숭고한 풍모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안녕을 보위하는것을 최상의 의무로 간주하고 살며 싸워 나가는데서 높이 발휘되고 있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는 자기 수령의 안녕을 옹위하는 성새, 방패로 굳게 뭉쳐 있다. 전체 인민이 자기 수령의 안녕만을 바라고 수령을 옹위하는 길에서 죽음도 두려움없이 웃으며 맞받아 나가는것이 조선인민의 고결한 사상감정으로 되고 있다.

수령결사옹위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풍모는 또한 모든 사업과 생활과정이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관철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자기 수령의 사상만을 따르고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조선인민의 풍모는 수령의 사상을 체득하고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체질화된 한없이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해 나가는 조선인민의 사상정신세계는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의 나날에 뚜렷이 과시되였다.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추호의 양보와 용서도 모르는 확고한 원칙성,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고 구현하기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영웅적희생정신, 바로 이것이 ≪고난의 행군≫시기에 발휘된 조선인민의 고결한 풍모이다.

수령결사옹위를 실천의 구호로 삼고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풍모는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고수하고 백방으로 다져 나가는데서 힘 있게 과시되고 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해도 오직 수령과 숨결을 같이 하려는 확고부동한 신념, 혁명의 원쑤들과는 끝까지 사생결단하려는 투철한 각오, 수령의 업적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 하지 않는 고결한 희생성, 바로 이것이 우리 일심단결의 대오에 차넘친 숭고한 정신이였다.

가는 길 험난해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와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 나가려는 조선인민의 결사의 맹세와 각오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굳세여 지고 있다.



조선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 가는 행복한 인민

나이제리아인사

(평양 주체 90년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얼마전 조선을 방문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대표단 단장인 당 전국재정비서 아워옐루 클레멘트 콜라월레는 체류기간 받은 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이 나라와 인민에 대하여 많은것을 알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선전을 들어 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선은 많은 의혹을 가지게 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이번에 귀국을 방문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것은 이 나라인민이야말로 수령복을 타고 난 행복한 인민이며 조선은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가는 투사들의 나라이라는것이다.

우리는 체류기간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고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의 한생은 시대와 력사의 방향타를 틀어 쥐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걸출한 수령의 빛나는 한생이다.

그이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여 인류의 사상리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김일성주석의 고전적로작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종 어문으로 출판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이의 위인적풍모와 업적을 가슴깊이 느끼게 된다.

하기에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주석을 그토록 못잊어 하며 그이를 열렬히 흠모하고 있는것이다.

이번 방문기간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

우리는 이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돌아 보면서 건축물들의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보다 더 경탄을 자아내는것은 그 모든것이 조선인민자체의 힘에 의해 일떠섰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조선의 로동계급은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자기 힘으로 훌륭하게 만들어 내고 있다.

자력갱생은 조선인민의 고유한 투쟁방식으로 되고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 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적통찰력과 세련된 령도력, 강철의 담력을 지니시고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여 조선을 오늘과 같이 가장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인민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였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행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려 가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태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른다

총련 남승우부의장 강조

(평양 주체 90년 7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조국에 도착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남승우부의장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우리 인민이 반만년민족사에서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있었으며 얼마나 큰 수령복을 누려 왔는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그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우리 수령님과 같이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장구한 혁명생애의 전 로정을 불멸의 영웅서사시로 수 놓아 오신 위대한 혁명가는 일찌기 없었다.

경애하는 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이민위천의 새로운 철학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혁명의 진로를 밝혀 주시였으며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 주시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과 진정한 인민의 정권, 불패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시여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가 있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가장 복잡하고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독창적으로 열어 나가면서 이 땅우에 륭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 올수 있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고귀한 한평생을 바치시며 20세기와 더불어 찬연히 빛날 영원불후한 업적을 이룩하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진보적인류의 대성인이시다.

인류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고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주시고도 자신께서는 오로지 한폭의 붉은기만을 안고 가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은 무궁번영하는 주체조국과 더불어 태양의 존함으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우리모두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더 없는 긍지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어버이수령님은 영생하시며 이 땅우에 태양의 력사는 끝없이 흐르고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제정하도록 하시였으며 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도록 법제화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게 하시여 수령님을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게 하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아 올리신 위대하고 고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빛내이시는 희세의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 숭고한 덕망은 한치의 드팀도 없이 그대로 이어 지고 있으며 동서고금에 없는 우리 민족의 이 수령복을 두고 세상사람모두가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비범한 예지와 철의 담력으로 천하를 다스려 세계속의 조선을 조선속의 세계로 전변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모시여 인류는 머지 않아 휘황찬란한 자주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것이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총련을 영원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충실한 주체의 애국조직으로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난다

4월 15일 노동신문 사설

조선혁명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하나의 사상과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위대한 혁명이다.

우리 인민은 지나온 20세기와 다름이 없이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항로따라 승리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들고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서고 있는 장엄한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을 뜻깊게 기념하게 된다.

태양절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맞이한 역사적인 날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모심으로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처지에서 근본적인 전변이 일어나고 자주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격동적인 20세기의 혁명투쟁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날처럼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 날은 없다.

올해의 4.15는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에 맞이하는 첫 태양절이다.

우리 인민은 지금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걸어온 20세기의 영광 넘치는 길을 돌이켜 보면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21세기의 향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받들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려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세기가 바뀌어도 영생하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적 유대는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 진군이 영원히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해나가는 무궁무진한 원천이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을 모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20세기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높이 떨칠 수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정치가는 없습니다.≫

20세기는 인류의 운명과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미증유의 전변과 비약이 일어난 세기였다. 20세기에 우리 민족은 식민지 약소민족으로부터 존엄높은 자주적인 민족으로 위용 떨치게 되었으며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이 거창한 전변의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시대의 중심에 서시어 세기의 흐름을 주도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 있다.

일찍이 1920년대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와 역사의 중하를 걸머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것은 자주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시발점으로 되었다. 그때로부터 수령님께서는 20세기의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혁명의 수많은 연대들을 승리의 서사시로 수놓아 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세기 혁명투쟁사의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투쟁을 다 체험하시었고 혁명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련과 난관을 다 겪으시었다.

20세기 자주의 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세기의 마지막 연대에도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위업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고의 길을 걸으시였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이끄는 정치가로서 20세기의 거의 모든 연대들에 지울 수 없는 영도의 자욱을 남기고 민족사에 헤아릴 수 없는 공적을 쌓은 위인을 오직 **김일성**동지 한 분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적 생애야말로 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정치가의 영광스러운 생애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가 배출한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인류의 영재이시다.

지난세기의 인류의 사상이론적 보물고는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풍부화되어 왔다. 이 역사적 노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사상이론적 업적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을 마련하여 주시었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역사무대에 도래한 자주시대의 전도가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이 20세기 혁명운동과 국제관계발전에 미친 영향력은 헤아릴 수 없다. 주체사상이야말로 지난 세기의 혁명적 인민들이 받아 안은 사상이론적 재부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재부로 된다.

20세기 혁명실천에서는 지난날에는 예상치 않았던 착잡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명철한 분석력과 통찰력으로 사회주의운동과 세계정치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에 완벽한 해답명을 주시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부터 정치와 경제, 군사, 과학교육과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명확한 사상이론적 해명을 주시지 않은 분야란 없다.

20세기에 이처럼 한 없이 넓은 식견과 해박한 지식,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백과전서적인 사상이론적 업적을 이룩한 정치가는 없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백승의 위훈을 창조하신 영도의 거장이시다.

백전백승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혁명의 붉은 깃발에 혁혁한 승리의 서사시만을 개척하여 온 것이 우리 혁명의 20세기 진군길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근 70성상에 달하는 혁명활동의 전 노정을 준엄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수령님께서는 이 나날들에 단한번의 로선상 착오나 실패를 모르는 역사에 유례없는 영도사를 창조하여 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은 피어린 항일대전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고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왔다.

외세에 의한 국토의 양단,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암해책동, 세계 사회주의운동에서 일어난 복잡한 사태, 이런 가운데서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수호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어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영도업적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련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조국의 운명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도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의지와 담력은 우리 인민에게 천만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한 힘을 안겨주었고 격변하는 정세를 순간에 격변시켜 나가시는 수령님의 지략과 영도예술은 사회주의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하였다.

우리는 쓰라린 곡절도 있었고 빛나는 위훈도 많았던 격동의 20세기를 돌이켜 볼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혁명의 영재를 모시고 투쟁의 길을 걸어 왔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하게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만민을 매혹시키는 특출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20세기 혁명의 대

성인이시다.

20세기의 사회주의정치사는 영도자의 인품과 덕망에 의하여 나라의 권위도 인민의 운명도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숭고한 인간애, 열렬한 혁명적 동지애로 혁명활동의 전노정을 수놓아 오시었다. 혁명적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정력적으로 이어 나가시며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역력히 새겨져 있다.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도 지닐 수 없었던 고매한 덕망을 지닌 인민적 수령을 모시었기에 우리 혁명의 전노정이 숭고한 동지애의 역사로,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역사로 빛나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었으며 세계의 수많은 국가지도자들, 명망높은 사회계, 정치계, 학계, 예술계인사들과 뜨거운 친분관계를 맺어 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노련한 영도풍모와 고매한 품격, 한없이 너그러운 포옹력은 사상과 정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 지어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매혹시켰고 만민을 격동시켰다.

영토도 인구도 그리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떳떳이 존엄떨칠 수 있은 것은 수령님의 인품이 위대하고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상과 영도에서도 최고이고 덕망에서도 최고인 현대정치가의 귀감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수령님의 권위로 혁명하여 온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특전이었고 세기의 행운이었다.

우리 인민은 20세기에 누려 온 이 영광과 긍지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간직해 나아갈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기와 더불어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과 인민의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 진군을 힘차게 추동하는 만년재부로 되고 있다.

혁명은 수령이 이룩한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전진하며 계승완성된다.

수령의 위대성은 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만년대계의 밑천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 혁명은 21세기 진군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수령님은 새 세기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오늘의 진군에서 더 큰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

21세기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이 더욱 빛나는 세기, 수령님의 사상과 뜻이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세기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혁명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자주의 한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밑천으로 되고 있다.

21세기는 자주의 세기이며 나라와 민족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새 세기의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주체확립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정치의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여오시었다.

사대와 교조의 조류가 횡행하던 광복직후의 그 어려운 때에도 조선혁명의 자주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제국주의자들이 **에 들어갈 것을 강요할 때에도 민족적 이익을 끝까지 고수하신 수령님의 자주적 신념의 확고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위대한 수령님대에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대를 이어 고수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과 물질적 기초가 다 마련되었다.

이 훌륭한 유산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자주적 인민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 하는 치열한



사회주의 붉은기 수호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꺾일 지언정 굽히지 않는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불타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지닌 자주적인 인민으로 키워주시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할 소리를 다하고 남들이 어떤 길을 가든 자기가 선택한 주체의 길만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질이다. 자기 수령이 심어준 드놀지 않는 자주의 신념으로 싸우는 위대한 인민이 있는 한 **김일성**민족의 영예는 21세기에 더욱 높이 떨쳐질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과 인민이 선군정치노선을 끝까지 관철할 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시는 선군정치는 우리 시대 영원한 전략적 정치방식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만능의 보검이다. 선군의 길에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 진군의 승리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기 선군정치의 튼튼히 마련하여 주신 탁월한 전략가이시다. 수령님께서는 일찍부터 군사를 선행시키는 철저한 원칙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국방력강화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 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의 영도의 손길 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일당백의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며 전국가적 전인민적 방위 체제가 확립되게 되었다.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사실상 선군혁명영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먼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혁명위업을 끝까지 보위할 수 있는 강력한 군력을 마련하여주신 장군님의 선견지명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선군정치는 하나의 체계화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전통을 구현하고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영도 밑에 완성되고 공고화된 선군정치방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던지 절대로 흔들리는 일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21세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수 있는 만년터전으로 되고 있다.

21세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떨치게 될 보람찬 세기이다.

우리 인민이 오늘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갈 수 있게 된데는 조국건설에 바치신 수령님의 크나큰 노고가 깃들어 있다.

우리조국을 모든 것이 흥하고 인민들의 행복이 꽃피는 세계제일 강국으로 건설하려는 것으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었고 원대한 목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지니시어 영 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번영을 위한 터전을 하나하나 마련해 오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마지막 시기까지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힘있는 국가경제력을 가지며 모든 분야에서 강성대국의 체모를 갖추도록 하는데 헌신분투하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인민에게 남기신 유훈도 **김정일**동지를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였다.

21세기에 우리가 가야할 길은 지난 세기에 못지 않게 간고하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의 만년재부가 있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해낼 것도 없다. 21세기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는 수령님의 사상과업적에 토대하여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는 전면적 부흥의 역사로 될 것이다.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21세기 진군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 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혁명하는 인민의 최대의 행운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것이다.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영도자의 위대성에 혁명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수령의 영생이 있다.

지난 20세기가 **김일성**세기로 빛을 뿌려온 역사적 행로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걸음걸음 아로새겨져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풍파 사나운 20세기의 수많은 연대



들을 함께 헤쳐오셨으며 백전백승의 영도사도 함께 창조하여 오시었다. 복잡다단한 세기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시는 수령님의 가장 가까이에는 언제나 장군님께서 계시었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시는 장군님의 가장 가까이에는 수령님께서 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상이론활동도 함께 벌리시고 사회주의건설도 함께 이끄신 나날은 20세기 우리 혁명투쟁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뜻깊은 연대기였다.

오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과 사상이 영원히 빛을 뿌리는 영광의 세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고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 진군은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충성의 진군이며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위한 숭고한 의리의 진군이다.

21세기의 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노선과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혁명은 수령이 생존하던 시기에나 서거한 이후에나 수령의 혁명노선에서 추호의 탈선도 모르는 계승성있는 혁명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전 기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노선을 100프로 고수, 100프로 계승하는 원칙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 오시었다.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투철한 입장을 지니시고 우리의 사상과 이념, 우리의 혁명방식을 굳건히 지켜 오시었고 고난의 행군이 결속된 오늘에도 이 입장을 일관하게 고수해 나가시는 분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다.

김정일동지의 원칙적 영도가 있기에 지금 우리 혁명에서는 당적 영도의 원칙,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원칙을 비롯하여 수령님대에 구현되어 온 혁명적인 노선과 원칙들이 계속 견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기가 교체되었다고 하여 수령님께서 선택하신 주체의 항로에서 이탈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새 세기의 환경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 노선을 구현하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키고 계신다.

자력갱생의 원칙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강성대국건설시기의 요구에 맞게 관철해 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영도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활기를 띠고 다그쳐지고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이 산 현실에서 더 큰 은이 나도록 모든 사업을 혁신적 안목에서 대담하게 전개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창조적인 영도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

21세기 사회주의붉은기 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모든 것을 찬란한 현실로 전변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통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걸쳐 펼쳐주신 설계도에는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가 비껴있다. 이 모든 구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의 모든 사업을 확정하고 설계하실 때마다 수령님의 뜻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고 수령님께서 바라시던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계신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국토관리사업을 만년대계로 진행하며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주신 유훈교시를 관철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도처에서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이 통이 크게 벌어지고, 인민사업에 이바지하는 현대적인 공장들이 연이어 일떠서고 있으며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워 나가시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구상을 꽃피워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는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에 새로 수놓아지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수령님의 영도사적이 더욱 빛이 나도록 이끄시는 **김정일**동지의 노고는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혁명을 개척한 선대수령에 대한 혁명적 도덕의리의 최고 정화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새 세기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이 더욱 큰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고 수령님의 영도 업적이 빛이 나고 있으며 수령님의 권위가 확고히 고수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에서 수령영생위업이 영원히 담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존함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 인류의 심장 속에 영원히 간직되게 될 것이며 수령님은 21세기와 더불어 주체의 위대한 태양으로 영생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주체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한 21세기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우리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 해도 우리는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지켜 ** 꿋꿋이 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당의 움직일 수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오랜 세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따라 긍지 높고 보람찬 혁명의 한길을 걸어왔다.

우리 모두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20세기의 장엄한 혁명투쟁 속에서 자라난 수령님의 아들딸이며 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피끓는 심장 속에 간직한 혁명전사들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21세기 진군은 이 맹세를 끝까지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으로 된다.

우리는 다음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이하게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을 모신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떨치는 중대한 계기로,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역사적 이정표로 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의 영광스런 혁명역사와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21세기 사회주의 총진군을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위대한 **김일성**동지식으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 21세기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세기이다. 새 세기에 나선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만능의 무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이론이며, 수령님식 방법이다. 수령님식으로 난관과 시련을 뚫고 수령님식대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 진군에서 견지하고 계시는 확고한 입장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그 진수를 견결히 고수해 나가야 한다. 당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 대외사업 등 모든 사업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의도하시고 몸소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신데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뜻받아 나아가는 전략으로 제국주의 도전을 물리치며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담력으로 새 세기에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식은 곧 주체식이고 우리식이며 여기에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지향이 담겨져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식데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새 세기의 전략적 구호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김정일**동지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김일성**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자존심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ㅌ. ㄷ 로부터 시작된 주체확립의 역사가 21세기에도 면면히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정치를 빛나게 구현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붉은기 진군에서 승리를 이룩해 나가는 결정적 담보이다.

21세기는 역사의 풍파속에서 검증된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세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뛰어난 정치실력 풍부한 투쟁경험, 20세기를 우리식 사회주의



의 승리로 결속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오늘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 받고 계신다.

김정일동지의 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노선과 방식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일관성있는 정치이며 예리한 정치감각과 능란한 지략으로 혁명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 위력한 정치이다. 21세기의 민족적 번영과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는 위대한 **김정일**정치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 당의 자주정치, 선군정치, 인덕정치를 일편단심 받들어 나가는 기수가 되고 손발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장군님의 영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진로를 세워야 한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영도를 받들고 인민군대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김정일세기로 불리우는 오늘의 세기에 사는 혁명전사의 최고의 좌우명은 **김정일** 결사옹위 의 구호이다. 주체의 혈통의 영원한 계승도 수령옹위 에 있고, 민족의 영원한 번영도 수령결사옹위 에 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수령옹위 를 실천의 구호, 생활의 구호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의 안녕과 권위를 지켜 나가는 참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영도자를 불변의 신념과 순결한 의리로 받들어 나가는 혁명적 동지애가 온 사회에 차 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새 세기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 나가야 한다. 21세기에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던 융성번영을 이룩하여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치시려는 **김정일**동지의 결심은 확고하며 구상은 한없이 웅대하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정보산업의 세기인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종자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담한 혁신적 안목과 전투적인 일본새로 위대한 장군님의 전략적 구상을 활짝 꽃피워 나가야 한다.

공장기업소들을 대담하게 최신기술로 갱신해 나가며 새 세기의 맛이 나는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을 도처에 일떠 세워야 한다. 전력공업과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높이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시려 헌신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염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올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물고기를 먹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인민소비품생산과 살림집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간곡한 유훈이며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 누구도 민족자주의 궤도 따라 온 겨레가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아가는 거창한 민족사적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구현해 나감으로써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되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져 있다.

20세기의 승리의 노정마다에 휘날린 사회주의붉은기가 오늘도 우리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고무해 주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이념과 영광스런 한생이 어린 혁명의 붉은 기를 끝까지 높이 들고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영도를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의 영마루 위에 우리의 성스러운 붉은기가 반드시 휘날리게 할 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승리의 신심드높이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아가자.



영원히 빛나라 주체의 태양이여

조선중앙방송 정론

우리 민족은 인류사의 최고의 명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 이날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가장 뜻깊은 대명절이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들이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있다.

인류역사의 갈피마다에는 수많은 명인들의 위인상이 기록되어 있다. 저명한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명성 높은 장군들과 명망있는 문호들이 역사의 페이지들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위대한 수령님처럼 해당시기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온 인류의 가슴에 빛나게 새겨진 위인은 없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던 쿠바여성법률가 깐델라디아 로드리게스의 심장의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부를 때에 저 하늘의 태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태양은 위대하며 영원히 솟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은 우리 인민들 뿐 아니라 쿠바인민들과 전세계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서 인류의 태양으로 억만년 길이길이 찬란히 빛을 뿌릴 것이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은 영원한 태양이시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태양으로 온 세계, 온 우주에 빛나고 옹근 한세기 20세기를 빛내었으며 앞으로 흘러갈 전 인류역사에 영원한 태양으로 솟아 끝없이 빛나리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태양은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빛을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정치사상과 정치적 영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우리 수령님을 인민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는 것은 온당한 일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태양의 존함, 김일성.

이 존함에는 태양의 모습 그대로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이 그대로 어려있거니.

우리 인민은 그 이름도 빛나는 어버이 수령님의 존함을 부를 때마다 가장 숭고한 마음 안고 수령님의 위인상, 태양의 모습을 우러러 보게 된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하며 위대한 것을 태양에 비겨왔다. 태양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생명활동의 원천이다. 태양의 빛은 우주를 비춰주는 무한대한 것이고 태양의 열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안아 키우는 한없이 따사로운 것이며 태양



의 인력은 우주의 모든 행성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존함 그대로 태양의 모습으로 빛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걸음걸음 헤쳐오신 80성상의 노정은 시대와 인민의 앞길을 밝혀준 태양의 역사로 빛나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도 우리 민족과 인류를 위해 헌신한 태양의 공적으로 빛난다.

하여 수령님께서 한평생 이룩해 오신 위업은 인간이 살고 행성이 건재하는 한 영원한 태양의 위업으로 존재할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사상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 그것은 태양의 빛발이다.

태양의 빛이 행성에 광명을 준다면 위인의 사상은 인류에게 앞길을 밝혀준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주체사상의 빛발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기운명을 틀어쥔 가장 힘있는 존재로 만드는 위력한 무기이고 압박 받고 천대받는 인민을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우는 생명수이고 인류의 역사를 자주의 궤도 위에 올려 세우는 원동력이다.

우리 인민은 그 위대한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깃발 따라 전진하는 긍지 높은 자주적 인민이며 우리 조국은 그 탁월한 사상의 찬란한 빛발안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용 떨치는 주체의 조국이며 우리 시대는 그 빛나는 사상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전진하는 역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이다.

러시아신문 빠뜨리어뜨 제51호는 광명은 동방에서 비춰오고 있다 라는 글에서 주체사상을 얼마나 격찬해 마지않았던가.

한때 혁명가들, 정치가들, 사상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전 소련을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중심지, 혁명의 성지,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일컬으며 모스크바행 열차를 타고 다녔다면 현시에는 행성의 명망높은 혁명가들과 정치가들,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모스크바의 저명한 인사들까지 평양행 열차를 타고 동방 조선을 찾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 새로운 흐름 앞에서 무엇을 논해야 하는가. 20세기 후반기 아니 21세기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지, 평양의 성지, 인민중심의 사회주의 조국은 조선이며 그것은 사상의 광명이 모스크바에서 비춰간다고 하던 낡은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동방 평양에서 온 우주에 비춰가고 있는 주체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역사적 사변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우리 조국은 주체사상의 조국, 주체사상의 성지, 주체사상의 중심지이거늘 최근년간 우크라이나, 인디아, 레바논, 코스타리카, 수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 전국토론회장에서 울려나온 격찬의 목소리를 되새겨 보시라.

주체사상은 위대한 태양의 영원한 빛발
주체사상은 21세기의 사회주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재생과 그 종국적 승리의 등불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영원한 기치

가슴들을 세차게 두드려주는 이 칭송의 목소리들.

정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영원히 불멸할 사상임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심장의 외침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는 새 세기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의 등대로, 썩고 병든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다.

정녕 생전시에도 수많은 인민대중의 빛발을 안겨주시고 오늘도 태양의 광명을 안겨주시는 우리 수령님과 같으신 위인이 동서고금 그 어디에 있었던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정치를 펼치신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 그것은 태양의 열과 같이 끝없이 따사로운 것이다. 태양의 열이 만물을 꽃피우는 열원이라면 위인의 정치적 영도는 인민의 만복을 꽃피우는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신 걸출한 정치가, 탁월한 영도자이시다.

수령님의 정치, 그것은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세상에서 살려는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시켜준 인민적 정치이고 한점의 그늘도 없이 천만사람들에게 보람찬 삶을 안겨주는 광폭정치이며 평범한 사람들을 투사로, 영웅으로 키우는 은혜로운 사랑의 정치이다.

이 주체의 정치, 주체의 영도아래서 이 나라 인민들이 노예로부터 자기운명개척의 떳떳한 주인으로 자라났으며 **으로부터 값 높은 혁명가로 존엄과 영예를 떨치었고 가난하고 천대받던 인민이 행복의 상상봉위에 올라섰다.

우리 나라를 거듭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 차례 만나 뵈옵는 영광을 지녔던 도이칠란드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는 이렇게 격정넘쳐 말했다.

지난 수십세기에 걸치는 정치는 인민을 다스리는 정치였다. 수천년의 노예, 천년의 봉건, 5백년 이상의 자본의 정치는 인민을 정치 밖에 밀어 던지고 정치의 대상으로만 삼고 인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억압정치, 폭압정치, 독재정치였다. 이 정치들은 인류가 강요당한 무서운 고통과 불행, 재난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김일성**주석의 정치는 이민위천의 정치이다. 그이께서 이민위천의 철학을 정치적 영도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덕을 정치의 근본바탕으로 기본핵으로 하는 주체의 인덕정치론을 창시하신 것은 참으로 인류정치사의 대혁명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덕정치 아래서 인민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리우는 정치, 인민들이 정사의 주인으로 되고 정치가 인민에게 복무하는 정치의 새 역사, 새 세기가 펼쳐졌다. 참으로 이민위천의 정치, 인덕정치는 세계정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정치의 백과전서, 정치의 대강, 정치의 나침반.

바로 여기에 태양의 정치,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의 위대성이 있고, 숭고성이 있고, 불패성이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태양의 인품을 지니시었던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 그것은 태양의 인력과 같이 만사람을 끌어당기고 매혹시키는 더없이 고결한 인품이시었다. 태양의 인력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힘이라면 위인의 인품은 인민이 스스로 뭉치고 따르게 하는 구심력이다. 태양의 인품에 매혹되어 인민들이 위인을 진실로 따르며 한 대오에 뭉치는 법이다.

우리 수령님은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특출한 인품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하룻밤에 천리를 달려가시었고 사선도 헤치시었던 그 불같은 동지애, 그 많은 강줄기를 다 안는 대양과 같이 정견도, 사상도,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을 한품에 안으시었던 무한대한 포옹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끄떡하지 않으시었던 무비의 담력, 이런 천품이 지니시었던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혁명의 첫세대 항일혁명에서 **투사들도 우리 혁명의 2세, 3세들도 바로 우리 수령



님의 성품에 매혹되어 수령님의 품을 태양의 품으로 여기고 거기에 한생을 맡기고 따르지 않았던가. 우리 인민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과 같은 그 인품에 끌리어 수령님을 받들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오고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신 한 가정, 한 식솔로 된 인민이다.

수령님의 고결한 인품은 일찍이 항일혁명시기에 **와 같은 완고한 사람들을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한 열하의 인품이었고 광복 후에는 김구와 같이 한생을 반공으로 늙어온 우익정객들도 연공애국의 길을 걷게 한 뜨거운 포옹의 인품이었으며 채덕신과 같이 곡절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 온 사람들도 재생의 길을 걷게 한 고결한 인정의 인품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품에 매혹된 사람들이 어찌 우리 인민들뿐이랴. 민족사상 최대의 국상을 당하여 피눈물의 바다에 잠겨있던 그 7월의 그 날로부터 5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은 21만여명의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의 가슴속에서도 수령님의 특출한 인품에 대한 찬탄의 감정이 뜨겁게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여기에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7월의 그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정에서 그처럼 끝없이 눈물을 흘렸던 우리 나라 주재 어느 한 나라 대사는 위대한 수령님은 단순히 소재국의 국가수반으로서만 아니라 자애로운 어버이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만큼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에 매혹되었던 것이다. 그는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자주 찾아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보았다.

그 어느해인가 소환장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는 만수대언덕으로 올라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석별의 인사를 삼가 올리었다. 그는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시를 심장으로 읊었다.

평양, 너는 나를 다시금 만수대언덕에 세운다
그 넓은 화강석 계단에 올라
열하의 인간애로 온 세계, 온 우주를 안으신 태양
꺼지지 않는 태양의 동상을 우러러
영생을 절절히 바라노라
억만년 불멸할 태양의 빛발 심장에 안고
살며 싸워가리라

지나온 인류정치사, 외교사를 돌이켜봅시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 외국대사가 소재국의 국가수반과의 사이에 이렇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던가. 오직 열렬한 인간애의 최고 화신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현대외교사에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인간애의 전설의 낳으신 것이다.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해 외친다. 소리 높이 칭송한다.

아-.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사상의 태양,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정치의 태양,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인품의 태양.

그러니 우리 수령님을 태양으로밖에 달리 부를 수도 없고 구가할 수도 없는 희세의 대성인이시었고 위대함을 하여 영원불멸하신 절세의 위인이시었다.

태양의 존함을 지니시고 태양과 같이 한생을 빛내어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존함은 영원히 수령님의 위인상을 인민들의 마음속에 심장깊이 새겨주며 천만년 불멸하리라.



위대한 태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우리는 만수대언덕에서 우리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를 때면, 금수상기념궁전에서 영생하고 계시는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숭엄한 감동에 휩싸여 뵈올 때면 태양의 위업, 수령님의 위업을 천세만세 받들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장 숭고한 마음안고 우러르며 따르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 나가시는 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투쟁하시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을 이끌어 오신 노정을 돌이켜보시라. 걸음걸음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이 빛나는 자욱자욱은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여 오신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충성, 바로 그것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존함 그대로이신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신다.

우리 인민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찾고 또 찾는 태양의 성지, 금수산기념궁전.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이 빛나고 수령님의 태양과 같은 거룩하신 모습이 입상으로 모셔져 있으며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이야말로 사상의 태양,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혁명의 최고 성지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는 것을 성스러운 수령영생의 실현에서 최고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그를 가장 빛나게 실현하시어 인민들의 마음속에 인류의 마음속에 수령님의 영상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오신 장군님. 역사는 선대수령을 그처럼 최상의 경지에서 가장 높이 모신 충성의 서사시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딸리아 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카들로 카로리가 금수산기념궁전 참관록에 남긴 심장의 글발이 떠오른다. ≪나는 선대수령을 안치한 각이하는 묘들이 산적이 놓여있고 그들을 찬양하던 노래와 시들도 자치를 감추고 있으며 박물관, 사적관들이 문을 닫고 수령의 이름이 사라져 가고 있는 동유럽의 참상의 목격자이다. 평양의 이 숭엄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금수산기념궁전은 **김일성**동지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도덕의리의 최고 절정, 최고 정점, 최고 정화라고 말하고 싶다.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선대수령의 영생위업을 가장 완전무결하게 실현하신 위인의 귀감이시다.≫

가장 순결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뜨거운 마음을 안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어 수령님의 위업이 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고결한 충정을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우리가 생명선으로 삼고 싸워 나가는 혁명사상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우리 혁명의 영원한 향도적 역량인 조선로동당도 **김일성**동지의 당, 우리 혁명을 총대로 옹위하는 혁명무력도 **김일성**동지의 군대.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이 모든 전취물들에는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충정과 **의 영도업적이 수놓아져 있다.

오늘 우리 조국 그 어디엘 가나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존함, 위대한 업적이 찬란히 빛나고 수령님의 존함과 영상을 심장 속에 간직한 영광스런 **김일성**민족의 강철의 대오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 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총진군을 억세게 다그쳐 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은 우리 인민과 조국, 온 세계, 온 인류와 더불어 2000년대, 3000년대를 넘어 천만년 영원히 불멸할 것이다.



그리움과 경모의 7년



이 철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것 같은 크나큰 충격과 슬픔속에 민족의 어버이,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비보를 접하던 못잊을 그날로부터 어느덧 7년.

양정아 : 그 무수한 날과 날들은 주석님을 못잊어 흐르는 마음과 마음들이며, 그분을 우러르는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과 마음들이 뜨겁게 분출되어 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철 : 그리움과 경모의 7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계세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주석님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리는 우리들입니다.

주석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개척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로, 횃불로 영원히 빛을 뿌릴겁니다.

내 고향은요, 6.25때 **김일성**주석님 다녀가신 고장이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석님 다녀가신 집이랑 잘 가꾸면서요, 매일매일 주석님 얘기로 꽃을 피운다구요.

김일성주석님은 정말 우리 민중과 겨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셨죠. 주석님께서 이남민중을 위해, 민족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사랑과 노고를 어찌 눈에 흙이 들어간들 잊을수 있겠어요.

이 철 : 네, 주석님을 잊지 못해하는 각계민중의 반향이었는데요.
양정아 : 지난 7년간 우리 민중의 가슴가슴마다에서 주석님을 그리며 경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분출되었는지 김혜정씨 통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철 : 안녕하십니까.
양정아 : 안녕하세요.
김혜정 : 안녕하세요. 지난 7년간 우리 민중은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을 더욱 더 깊이 절감하고 그분을 끝없이 그리며 경모해왔는데요. 우선 해마다 그분의 탄생일인 태양절과 서거일을 맞을때면 주석님을 회고하며 그분의 영생을 기원하는 각종모임과 강연회, 기념도서 및 소책자발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어요. 태양회 나 백두청년회 를 비롯한 각계 이념소조들에서는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 , 모두다 옷깃 여미고 그분의 영생을 기원하자 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씨디들과 **들을 제작배포하거나, 주석님의 *** ***을 카세트테잎들에 옮겨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주석님의 위인상들을 담은 글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 기간 주석님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을 칭송찬양하는 시, 노래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학작품들 또한 수많이 창작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를 찾아서 주석님의 저작과 그분의 주체사상과 관련한 도서들을 깊이 탐독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열람, 대출된 자료들을 보면 **김일성**저작집 , 주체사상총서 같은 서적들이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데요. 이곳을 찾는 분들중에는 대학생, 교수는 물론이고 연구소 및 언론기관직원들과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요. 한편 서울과 경기도, 평택, 포천, 충주의 수안보 등 주석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고장들에서는 주석님 다녀가신 자랑이 전설처럼 전해가고 주석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더욱 두텁게 쌓아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철 : 네, 김혜정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혜정 : 감사합니다.
양정아 : 경애하는 주석님을 그리며 경모하는 우리 민중의 마음은 그분께서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철 : 그럼 여기서 노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태양의 집

노래- 태양의 집

평양성 우러르며 그리는 어버이
어디서나 어버이 태양의 집
한없는 그리움에 마음 젖어도
**** 가슴마다 *****안네
금수산기념궁전 태양의 집에 **김일성**주석님 영생하시네
금수산기념궁전 태양의 집에 **김일성**주석님 영생하시네
아--- 영생하시네

행성엔 줄을 잇는 ***는 많아도
제일먼저 찾아가는 태양의 집
이 세상 억눌린 작은 가슴도
그 집 울안에 서면 세계를 안네
금수산기념궁전 태양의 집에 **김일성**주석님 영생하시네
금수산기념궁전 태양의 집에 **김일성**주석님 영생하시네
아--- 영생하시네

...

영생

총서≪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주체86(1997)년

. . .

김일성동지께서는 첫새벽에 보시였던 북남최고위급회담준비안을 다시 펼치시였다.

문건에 적힌 그 글자들에서 때로는 그 무슨 절절한 음악이 울려나오는듯도 하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지는듯도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50년의 분렬력사를 상기시키는 문건이 아닌가.

참으로 50년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념원하여 노래를 불렀고 얼마나 많은이들이 분계선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혈육들을 애타게 그리며 울었던가.

그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머리가 세여지고 잠을 못이루시던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그이께서는 회담준비안을 다 읽으시고 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밤 9시가 지났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어디선가 멀리서 천둥소리가 들려왔다. 그이께는 밤하늘에서 울리는 천둥소리도 경사로운 통일의 목소리처럼 흥겹게 들리였다.

그이께서는 수백리 먼곳에 계시는 **김정일**동지를 그려보시며 전화기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이윽고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송수화기를 들고 장군님을 부르시였다.

≪조직비서동무, 올려보낸 회담준비안을 보았습니다. 한자도 고칠것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절대찬성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김정일**동지의 목소리에도 흥분이 실려있었다.

≪그렇다면 당에서 토의한것으로 알고 비준하겠소.≫

수령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층 음조를 높여 뒤를 이으시였다.

≪그러니 이젠 남조선사람들과 마주앉으면 되겠구만!≫

수령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옆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바라보시였다. 민족력사에 특기될 7월 25일, 북남최고위급회담날자가 불과 18일 남아있는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도 그날을 생각하시는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응대하시였다.

≪지금 인민들은 어디에서나 북남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흥성거리고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이는 회담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속으로는 딴궁리를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생각이야 다 알고있지. 그러나 일없소. 김영삼은 나에게 맡기시오.≫

수령님께서는 여전히 흔연한 기분에서 여유있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늘 말해왔지만…≫

하고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지금까지 혁명을 해오면서 제일 큰 한으로 남았던것이 조국통일이였소. 길을 가다가도 어린이들을 보면 생각이 많았지. 분렬된 조국을 어찌 후대들에게 넘겨줄수 있겠소. 자나깨나 그게 근심이였는데 마침내 통일회담을 하게 됐소.

렬강들이 만들어낸 38분계선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가. 이 분계선때문에 조선사람들이 사는곳에는 어디에나 분계선이 생기게 되였소. 일본에는 총련과 민단의 분계선이 그어지고 미국, 카나다, 중국, 로씨야 할것없이 해외동포들이 있는곳에는 어디나 다 보이지 않는 분계선이 생겨났소. 이제 우리는 이 원한의 선을 몽땅 지워버리게 될거요.≫

수령님의 절절한 목소리는 강한 여운을 남기였다. 가슴을 울리는 그 여운으로 하여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였다.

수령님께서 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벌써 열시가 지났군… 시간도 갔으니 오늘은 이만하고 래일 만나서 더 이야기합시다. 평양에서 만납시다.≫

두분의 전화는 이렇게 끝났다.

수령님께서는 그 전화를 하시고서 일어나시였다.

그이께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고 아무도 없는 집무실에서 오래도록 이리저리 거니시였다. 정녕 통일대문의 빗장을 지금 자신께서 쥐고있는 심정이시였다. 이제 그 빗장을 풀고 대문을 활짝 열어제치며 ≪자, 통일이요!≫하고 소리치면 될것 같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런 흥분때문에 아까부터 심장부위에 동통이 오고있다는것도 느끼지 못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북남최고위급회담안에 수표를 하려고 집무탁에 앉았을 때 그것을 의식하시였다.

그때 바깥에서 번쩍 하고 푸른 섬광이 일더니 우뢰소리가 일어났다. 우리 나라 전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7월 7일은 일년사시절에 스물네절기를 가진 우리 나라 기후에서 여름더위가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여 소서라고 부르는 날이였다. 그러나 이해날씨는 삼복더위 못지 않게 찌는듯이 무더웠다. 그것은 해마다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던 중국장강일대에서 형성된 저기압골이 이해에는 예상외로 남태평양에서 아열대성 저기압골의 강한 영향에 압도됨으로써 전례없는 강한 비구름과 함께 아열대성기후를 도래하게 한것이였다. 그리하여 지구의 곳곳에서는 때아닌 폭우와 물란리가 펼쳐지는가 하면 유럽의 어느 지역에서는 섭씨 51도라는 살인적인 고온을 기록하고있었고 남조선의 대구지방에서도 기온이 섭씨 39도를 뛰여넘었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아픔이 날씨가 몰아온것이라는 착각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갑자기 밀려드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며 서둘러 문건을 펼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수표하기전에 한번 더 보려고 한장한장 번지며 아픔에 대해서는 잊으려고 애쓰시였다.

이때라도! ! 야속하다. 어찌하여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그이께서 그 아픔이 치명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였던가. 어찌하여 천재적인 예지를 지니신분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시였단 말인가?

문건을 몇장 넘기고 그이께서는 누구를 찾을가 하고 생각하시였다. 아픔을 더는 참을수 없으시였던것이다. 허나 그이께서는 ≪소동≫이 일어날것을 꺼리시였다. 그 ≪소동≫이 평양에 전달되여 **김정일**동지께 걱정을 끼치게 될것이 념려되시였다.

짐작컨데 이때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이 날씨가 몰아온것이라는 착각을 하신것 같았다.

그이께서 동통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하시였는지 그것은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였다. 허나 그이께서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고 참고계신것만은 분명하였다. 그이께서는 아마도 그 아픔이 시간이 흐르면 멎으리라고 믿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시였을것이다. 자칫하면 ≪소동≫이 일어나 단잠을 자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깨우게 되고 또 자신께서는 일을 못하게 될것을 걱정하여 혼자서 아픔을 참아내신듯싶었다.

그이께서는 원래 웬간한 아픔에 대해서는 내색하시지 않는분이였고 자신은 휴식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휴식에 대해서는 너무도 다심하게 관심하는분이시였다.

그러나 야속하다. 어찌하여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그이께서 그 아픔이 치명적이라는데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였던가. 어찌하여 천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분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시였던가?

그이께서는 계속 아픔을 참으며 일하시였다.

가슴에 오는 동통이 더는 참을수 없게 되였을 때 그이께서는 잠간 일손을 멈추고 누구를 찾을가 생각하시였을지 모른다. 의사를 부를가, 채순이를 찾을가, 아니면 책임서기? 부관? …그러나 잠자리에 편안히 누워있는 그들을 부르시고싶지 않았을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원래 그런분이시였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혼자서 아픔을 참으며 일하시였다. 집무탁우에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문건, 농업부문문건, 통일회담문건 등 여러 문건들이 펼쳐져있는것으로 보아 그때 동시에 많은 분야의 일을 헤아려보신것이 분명하였다. 그이께서는 그처럼 일감이 밀리고 바쁘시였던것이다.

동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하여 그이께서는 이러다가 혼절하여 쓰러지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이 일어나시였을것이다. 지어 래일 만나기로 약속하신 **김정일**동지를 못만나실것

같은 불안을 느끼시였을지 모른다.

그때라도! 어찌하여 그이께서는 그것이 현실로 되리라는데 대하여서는 느끼지 못하시였던가. 누가 곁에 있어서 벌써 창백하게 변해진 그이의 얼굴모습을 발견이라도 했다면?

허나 그이께서는 혼자 계시였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그이께서는 통일회담문건에 아직 수표를 하시지 못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오르신것 같았다.

그리하여 격전을 벌리듯 아픔과 싸우며 그 문건을 한장한장 번지여 간신히 마지막장을 넘기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우에 펜대를 총검처럼 틀어쥐고 1994년 7월 7일이라는 날자와 함께 근 한세기동안 조국과 민족의 기치로 되고있던 ≪**김일성**≫이라는 존함을 쓰시였다. 때마침 날카로운 푸른 번개불이 캄캄한 어둠을 가르며 먼 하늘 끝으로 쭉 뻗어나갔다. 뒤이어 천지를 깨버릴듯한 폭음이 일어났다.

아마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것이다.

잠자던 어린 아이들까지 그 소리에 소리에 놀라서 깨여났다.

하지만 그밤, **김일성**동지께서만은 듣지 못하시였다. 그때는 벌써 그이의 심장이 쇼크상태에 들어가는 순간이였다.

우뢰끝에 바람이 불며 하늘에서 비물이 좔좔 쏟아져내렸다.

밤하늘을 쩍 가르며 번개불이 펑끗 하더니 또다시 뢰성이 터졌다. 뒤따르는 바람소리, 비소리…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산천초목이 태를 쳤다.

아, 그것이 바로 인류의 불행을 예고하는 하늘의 눈물인줄 누가 알았으랴!

원통하구나!

하늘아, 땅아! …

주체83(1994)년 7월 8일 2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다.

· · ·

정각 8시, **김정일**동지께서 령구발인을 위하여 장의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방안에서 걸어나오시였다.

영결식장에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의장대 및 군기종대가 엄숙히 정렬해있었다. 그앞에 체구가 미출한 장령이 서있었다. 몇시간전만 하여도 실신상태에 있던 그 위병대장이였다. 그는 대나무처럼 곧바로 서서 조그마한 움직임도 없이 앞을 바라보고있었다. 갑자기 그의 눈에서 불꽃같은 강렬한 빛이 확 타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차가 조용히 영결식장으로 들어오고있는것이였다. 분명 추도곡이 울리리라고만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서있던 장의위원회 성원들은 별안간 귀청을 치는 위병대장의 씩씩하고 쨍쨍한 구령소리에 머리를 쳐들었다.

≪차렷!-≫

구령소리 뒤끝에 얼어붙은 정적… 한찰나의 그 정적을 타고 다시 울리는 구령소리!

≪영접들어- 총!- 우로- 봣!-≫

위병대대원들의 총창이 번쩍이며 빛살처럼 올라가고 머리들이 령구차를 향해 휙 돌아갔다.

위병대장은 장검을 비껴들고 수령님의 령구차를 향하여 땅을 척척 구르며 행진해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군기종대는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소장 량세철!-≫

장의위원회 성원들은 진정 살아계시는 수령님을 맞아드리는듯한 위병대장의 씩씩한 영접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어 령구차에 모셔진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자 불현듯 격정이 북받치면서 걷잡을수 없는 슬픔이 조수마냥 밀려와서 손수건들을 꺼내고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김정일**동지와 국가장의위원회 위원들의 차가 줄을 지어 정중히 따라갔다.

수령님을 모신 령구차는 마침내 군중들이 운집해있는 연도로 향하였다. 령구차는 수령님께서 생존시에 늘 타고다시시던 승용차로 하였고 붉은기로 감싼 령구주변은 진귀한 꽃들로 장식하였다. 령구차행렬의 선두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장중하게 주악하는 군악대를 태운 차들과 수령님의 령전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항일혁명투사들이 드린 화환을 실은 차들이 섰다. 거대한 꽃동산이

움직이는듯한 그 숭엄한 화환대렬앞에는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된 대형화환을 실은 차가 있었다.

금수산의사당 정문을 나온 령구차행렬이 ≪4.25문화회관≫이 자리잡고있는 룡흥네거리에 나타나자 삽시에 온 거리에 비장한 곡성이 터져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접한 그 시각부터 비애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니다, 믿을수 없다, 우리 수령님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사코 부정해온 인민들이 이제 더는 어찌할수 없이 수령님과 영결하게 되는것이였다.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은 령구차를 향하여 두팔을 벌리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애원했다.

≪가지 마십시오. 어버이수령님! 우리를 두고 어딜 가십니까.≫

≪못가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허나 수령님께서는 고난많고 시련많은 혁명의 길에서 승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쓰라린 아픔도 같이 겪으며 떨어질래야 떨어질수 없는 인연을 맺은 사랑하는 그 인민들에게 부디 잘 있으라고, 자손만대 행복하라고 따뜻이 당부하시듯 웃으며 지나가신다. 령구차는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치며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젊으신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처음으로 상봉하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신 그 개선문도 지났다.

전후의 페허와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전설속의 천리마를 이 땅에 불러내시여 평양을 일떠세우시고 조선을 다시 일떠세우신 그 빛나는 력사를 후손만대에 전하는 청동의 기념비가 서있고 락원의 평양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천리마동상앞 언덕길도 넘었다.

기념일과 뜻깊은 사변들이 있을 때마다 군중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며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을 뵈옵는것이 너무도 기뻐 이 나라 인민들이 감동의 눈물도 많이 흘린 **김일성**광장도 지나고… 행복의 집들을 일어서게 하신곳, 이 나라 어린이들이 공부하며 뛰노는 학교들과 궁전이 있고 병원들과 상점들, 극장들이 있는 거리들도 지나갔다.

자신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주실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거리이름도 ≪통일≫이라고 지어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마저 그것을 위해 바치시였으나 통일의 그날을 보시지 못한채 떠나가신 수령님의 숭고한 리념과 비통한 사연이 깃들어있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통일거리도 지나갔다.

통곡하는 비애의 바다 100리 연도에는 두팔을 벌리고 수령님을 부르며 발버둥치는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그이의 연고자, 접견자들도 나와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량귀동녀가 나왔습니다. … 까자흐스딴에서 온 귀동녀예요… 60년만에 저를 찾아놓고 그리도 기뻐하시더니… 어째 찾아놓고 가십니까? 못가십니다. … 못가십니다!≫

≪아버지!– 정춘실이 여기 있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가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아!–≫

수령님과의 인연에서 사연많은 전설같은 이야기를 남긴 수많은 연고자, 접견자들이 연도마다에서 자기 이름들을 부르며 이 아들, 이 딸을 남겨놓고 어디로 가시느냐고, 못가신다고 발을 구르고 통곡하여도 영결의 길을 떠나는 령구차를 멈춰세울수 없으니 아! 원통하구나…

붉은 기폭을 덮은 령구를 실은 승용차는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을 앞에 모시고, 거룩하고 인자하신 영상 – ≪태양상≫을 모시고 쓰러져 우는 연고자들도 뒤에 남긴채 멀리로 지나갔다.

령구차는 멀리로 갔으나 인민들은 흩어지지 않고 태양이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그 넓은 하늘, 그 밝은 태양이 바로 수령님의 모습이였기에…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주시던 수령님께서 가슴터지는 영결의 시각에조차 해빛처럼 밝게 웃으며 나오셨으니 그렇듯 위대하고 자애로운분을 잃었다는 상실의 아픔이 더 커져서 인민들은 ≪태양상≫을 바라보며 더욱더 땅을 치며 통곡한것이였다.

그렇다. 태양의 웃음! 그것이 바로 이 나라 모든 인민들이 무시로 보아온 수령님의 모습이였다. 그 웃음이 있어 인민들은 언제나 밝은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 가장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도 인민들을 위해 가장 많이, 가장 밝게 웃으신분! 그 웃음으로 하여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이 꽃펴났다. …

수령님의 웃음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전백승한다는 락관과 신념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하여 인민들은 수령님의 웃음에서 힘을 얻고 그 어떤 역경도 뚫고나갔다.

령구차가 지나간 연도에서 백발의 할머니 한분이 쓰러져우는 청년을 부축하여 일으킨다.

≪이 사람 젊은이, 그만 울게… 수령님은 돌아가시지 않았네… 저 하늘을 올려다보게, 저 하늘, 저 하늘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 아니신가…≫

머리에 인생의 서리가 내린 할머니의 말을 듣고 젊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정녕 그 넓은 하늘이 방금 보고난 ≪태양상≫으로 가득차있는것을 보았다.

≪할머니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은 우리의 하늘,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이러한 대화는 백리 연도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었다. 인민들은 령구차에 모셔왔던 수령님의 초상화≪태양상≫을 상기하면서 비록 수령님은 떠나갔지만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그이는 영원하다고 하였다. 그이께서 이 땅우에 꽃피워주신 모든 창조물들과 업적 속에, 그이께서 열어주신 창창한 미래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아니 온 우주에 그이는 꽉 차계신다고…

이날 영결식을 목격한 서방의 한 언론인도 말하였다.

≪오늘 **김정일**각하는 **김일성**주석 한분의 웃음으로 천만사람, 온 세계를 울게 하였습니다. 슬픈 령구차에 환히 웃으시는 주석님의 사진을 모시게 한 여기에 그분의 천재성과 비상한 충효심이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이날 수령님의 령구차를 모시고 수도의 거리를 도시면서 통곡하는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시였다. 그리고 더 굳게 믿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인민들의 품에 안기시였다. 인민을 위해 불같이 사시다가 불같이 떠나신분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하실 일을 다하시고 가신분을 인민들은 품에 안아 푸른 하늘에 떠받들어 모시였다. 인민들은 **김일성**동지를 하늘처럼 믿었고 **김일성**동지 또한 인민들을 하늘처럼 믿었다. 수령과 인민의 그 믿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니 수령님은 영원하실것이다. 그 어떤 력사의 동란속에서도 인민만은 영원하듯이 그 품에 안기신 그이는 영생하실것이다.

령구차가 100리 연도를 거쳐 룡흥네거리로 돌아왔을 때 하늘높이 세운 구호탑이 **김정일**동지의 눈에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구호를 자신이 내놓으신것이 아니라 인민이 내놓은것이라고 믿으시였다.

그러시며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더 생각하시였다.

인민이 있어 우리 수령님도 영원하시다고.

허나 이튿날 중앙추도대회에 참가한 수백만 사람들은 **김일성**광장 주석단에 오르신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저분이 계시여 우리 수령님은 영생하신다.≫고 믿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검은 옷을 입고 무거운 마음을 안은채 추도대회장에 서계시였다. 그이께서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시였으나 정의롭고 지혜로우며 모든것의 선생인 인민은 그이의 마음을 똑똑히 읽고있었다.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대대손손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도 건설도 수령님식대로 하리라,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백프로 계승하고 백프로 고수해나가리라, 수령님을 그대들 인민들의 품에 돌려주리라… 인민들은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그이의 심장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며 더운 눈물을 흘리였다.

×

평양에서 중앙추도대회가 진행된 7월 20일 낮 12시 정각, 조포가 발사되고 고동이 길게 울렸다.

그때 리영숙도 **김일성**광장 래빈석에 서서 묵도를 드렸다. 3분후에 그는 광장 주석단밑에 꾸려진 휴게실로 들어와 짐보관실에 맡겼던 취재용가방을 찾아들고 홀로 나왔다.

홀과 문 하나로 련결된 방안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였다.

리영숙도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될것이다. 그는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처음이였다.

리영숙이로 말하면 자기가 이제 그이를 만나서 별로 질문할것이 없었다. 이미 서면질문을 제기한바 있었고 그에 대한 대답도 명백해진 뒤였다. 적어도 어제 있은 영결식과 오늘의 추도대회에서 그는 조선에서 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것이 **김일성**주석의 생존시처럼 계속될것이며 국가수반 선거 같은것은 가까운 시일안에 없을것이라는것을 확고히 느끼였다. 그러면서도 **김정일**동지의 인간상에 대한 기대때문에 몹시 흥분되였다.

그분은 과연 어떤분일가?

이때 그분이 계시는 방문이 열리더니 김학철이 나왔다. 그는 무거운 얼굴에 애써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리선생, 접견이 뒤로 미루어질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그이께서 급한 일이 생겨 잠간 자리를 뜨셔야 합니다.≫

≪글쎄, 뭐라고 해야 할지…≫

두사람이 그러고있는데 **김정일**동지께서 방에서 나와 그들에게로 다가오시였다.

≪리선생, 먼길에 찾아와주어 감사합니다.≫

그이께서 손을 내미시였다.

리영숙은 그분의 손을 마주잡고 ≪얼마나 비통하시겠습니까?≫라고 조의를 표시했다.

≪우리 인민들이 다같이 비통해합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답례하고는 미안해하며 급히 떠나시였다. 이것은 잠간사이에 있었던 일이였다. 하지만 리영숙은 그분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면서도 례의가 밝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그분의 손이 매우 따스했으며 팔에 검은 띠를 두른것을 이상(이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두르지 않았다.)하게 보았던 기억을 간직한채 홀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잠시후 그는 김학철을 통해 자기의 접견이 뒤로 미루어진것이 한 이름없는 로인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로인은 오삼수였다. 오삼수는 방금전 조포가 울리고 고동소리가 날 때 운명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보고를 받은 즉시 팔에 검은 완장을 두르시고 급히 광장을 떠나시였던것이다. 그러나 그이의 팔에 두른 검은 띠가 단지 오삼수 한사람만이 아니라 애도기간에 숨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상임을 알았을 때 리영숙은 하늘이 내신 또 한분의 위인을 눈앞에 보았다. 그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광장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넓은 광장의 포석우를 오래도록 거닐었다. 그리고 성경의 한구절을 외웠다.

≪이리하여 모세의 ≪지팡이≫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도다…≫

리영숙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정오의 찬란한 태양이 불타고있었다. 그의 넋도 불타고있었다.

해방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전에서 갔다. 그러나 **김일성**주석께서는 겨레의 곁을 떠나시지 않고 후대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계신다.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사상과 위대한 미덕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일**각하가 계시여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

오, 남북삼천리에 도래할 하늘의 나라, 무릉도원의 세계여!

몇달이 흘러서…

그해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였다.

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속에 맞이한 주체84(1995)년 1월 1일, 아 얼마나 비통한 새해가 찾아왔는가, 허나 **김일성**동지는 영생하시는 우리의 하늘, 인민들은 이 설날에도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뵈우고 그이의 정다운 육성을 들었나니, 우렁우렁한 그 목소리 전파를 타고 누리에 울려퍼졌도다.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위훈으로 빛나는 1993년을 보내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그때로부터 또다시 반년후.

금수산의사당은 그 이름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고쳐 혁명의 최고성지로 되였나니, 수령님을 잃고 땅을 치며 비분에 떨던 인민들이 이제는 생전의 수령님을 찾아뵙듯이 매일과 같이 여기로 밀물처럼 모여든다. 여기서 인민들은 예나 다름없이 수령님의 체온을 느끼고 그이께 온갖 사연 아뢰이며 어버이의 사랑을 받고있으니 영광을 안았도다 우리 민족이.

사람들이여, 후손들이여! 새겨들으라, 사회주의의 시조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하늘이신 **김일성**동지를 뵙고싶으면 여기로 오시라. 우리 수령님께선 언제나 그대들을 따뜻이 안아주시리라.

그리고 잊지 마시라. 그대들이 누리는 이 영광, 이 행복이 어디서 오게 되였는가를…

아, 은혜로워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구국의 소리 주체 90(2001)년 4월 15일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로동자 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가 이 세상에 장중하게 울린 때로부터 50여년의 긴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김일성**장군의 노래 는 어제도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후덥히며 힘차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이 노래는 광복후 시인 이찬씨가 주석님께서 민족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길이 전하기 위해 지은건데요. 노래 창작과정에 고충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여사께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셔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의 탄생 이건 정말 이 땅에 태를 묻은 백의민족 모두의 기쁨이였구요, 영광이였습니다. 그건 바로 이 노래가 우리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김일성**장군님을 칭송하는 위대한 송가이기 때문이었죠.

노래가 나오자마자 제일 기뻐하신 분은 **김정일**장군님이셨는데요 그분께서는 김정숙어머님으로부터 이 노래를 배우시며 희망과 용기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후 노래는 겨레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서울에 살던 현모씨 가정에서는요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구세주로 모시는 배달민족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어서 그분의 초상사진을 높이 모시고요 그 밑에 **김일성**장군의

김일성장군의 노래



노래 가사를 3절까지 정중히 써붙인 다음 온 식구는 물론 동네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고 합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는 광복후 뿐 아니라 6.25전쟁시기 주석님의 토지개혁 덕분으로 땅을 돌려 받은 농민들과 각계민중들 속에서도 힘차게 불려졌고요. 격전장에 나선 인민군 용사들 속에서도 힘차게 불리워 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살다가 의용군에 입대해 용감히 싸우던 김윤수씨는요.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급한 속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부르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건 일제의 발톱아래 나라없는 설움을 안고있는 우리겨레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분도 그분이셨구요. 땅없는 농민들에게 땅과 논을 주신것도 **김일성**장군님이심을 너무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경기도 이천벌 농민들 얘기가 있는데요. 이곳 농민들은 마을이 해방되어 땅을 받던 날 **김일성**장군님의 하해같은 은덕을 대를 이어 전하자고 백양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오늘도 푸르싱싱 창공 높이 솟아서 역사의 증견자로 서있다고 합니다.

네 **김일성**장군의 노래 는 주석님께서 1984년 이남의 수재민들에게 보내주신 쌀과 천 등 수많은 구호물자를 받아안는 나날도 각계민중들 속에서도 힘차게 울려퍼졌는데요. 그분의 태양의 사랑에 너무나도 고마워 경기도 어느 한 마을의 김씨 가정에서는요 온 가족이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부르면서 그분을 해와 달에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충성을 다해가리라 맹세다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김일성**장군의 노래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

예, 정말 **김일성**주석님을 천년만년 모시고 자자손손 복락하려는 것이 우리민중의 염원이었죠. 그러나 주석님의 서거로 겨레의 소원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민중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부르며 힘과 용기를 내어 새희망을 키우고 오늘도 주석님과 똑같으신 **김정일**장군님의 영도 따라 주석님의 통일유훈울 기여이 실현할 일념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과감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80여성상 오로지 조국과 민중을 위해 헌신하신 분, 주석님은 비록 서거하셨어도 우리민중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더욱 높이 부르며 그분의 통일유훈관철에 한 몸바쳐 싸워갈겁니다.

네, 지금까지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탄신절을 맞으며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에 관해서 노래와 함께 얘기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양정아였습니다.



우리의 4월 15일

조창재

세월의 날과 달은 멈춤없이
이 땅위에 흘러가건만
마음속에 언제나 가지 않는
우리의 4월 15일

꽃이 피고 눈비 내리는 이 땅의 사계절
그 날과 날들은 지나가도
1912년 4월 15일이여
이 날은 정녕 추억의 먼 기슭에 흘러간
세월의 하루가 아니었구나

새 세기의 첫 태양절
오늘에 부르는 내 노래
그 봄빛을 안고 있어
이처럼 뜨겁게 울리는 것이고
거리를 지나는 아이들의 눈동자도
그 봄빛 어려 밝게 빛나는 것 아니던가

이날을 안고
이 땅의 천만 꽃들이 망울을 터친다
이날을 속삭이며
넓어진 청춘대지에 봄싹들이 움튼다
이날을 받들어
전사들의 선군선창이 번쩍이거니

내 이날을 생각할 때면
백두의 밀림에 새겨진 자욱자욱이
인민 위해 바치신 그 한평생이 한눈에 안겨와
가슴 뭉클 젖어 드는 수령님 모습

아- 1912년 4월 15일이여
그 속에 우리의 봄이 있고 여름이 있다
이날 속에 우리의 가을과 서리꽃 피는 눈계절이 있다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진
우리의 모든 날들이 이날로 흐르고
또 이날에서 시작된다

지나간 세기의 하루가 아니었다
흘러간 세월의 하루가 아니었다
주체 1년 그날은
지나온 날과 달을 다 거느리고
앞에 올 날과 달을 다 거느리고
무궁한 주체의 세월을 끝없이 열고 있나니

이 땅의 만복이 시작된 날이여
수령님 우리에게 태양으로 오신 날이여
붉은 기 강성대국의 앞길에
영원한 빛발을 뿌려주는
아- 우리의 4월 15일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빛나는 태양의 그 모습
오늘도 마음속에 계십니다

외세에 짓밟혀
한가닥의 빛조차 그리운
어두운 남녘의 가슴가슴에
환하신 미소를 보내주십니다

멀고도 고난에 찬 해방의 길에
어렵고 힘겨워 주춤할때면
위대한 태양의 그 이름
신심과 용맹을 안겨줍니다

자주, 통일, 애국의 길에서
눈앞에 깃발로 나부끼며
6.15선언 관철에 불러주시며
손잡아 이끄시는 우리 어버이

필승으로 새기는 주체의 뜻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고 새겨
장군님따라 그 뜻으로 꽃피울
통일삼천리에 천만년 빛나옵니다

아- 오늘도 빛나는 민족의 태양
영원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며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서거 7주기를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주석님을 향한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과 가장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오늘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한편 하루빨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을 달성하겠다는 충성의 맹세를 다집니다.

전 세계가 최대의 슬픔을 겪은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만민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태양위인상을 심장 속에 더욱 깊이 아로새기게 되었으며 그간 주석님의 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충효도덕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시고 태양조선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이 세상 어느 위인도 이룩할 수 없는 불멸의 대위업을 달성하신 수령 중의 수령, 위인 중의 위인이십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유일무이한 향도이념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 하심으로써 인류사상사에 영세불후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으며 수억만 인류에게 참다운 생명,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총대중시사상으로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연전연승하시는 세기적 기적으로 조국광복의 대업을 이룩하시고 사회주의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었으며 일제를 타도하시고 미제를 내리막길로 끌어내리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복잡하고 간고한 사회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단 한번의 편향도 없이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경탄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이민위천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의 과학적인 반제반미투쟁전략을 제시하시며 탁월하게 향도하심으로써 인류의 반제자주투쟁사에 길이 빛날 위훈을 달성하시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관되게 조국통일노선을 견지하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하시며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강화하시고 그 역할을 높이는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최고업적은 바로 수령승계문제의 빛나는 해결로서 수령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 그대로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이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계시는 충신중의 충신, 효자중의 효자이십니다.

인류의 영재이신 위대한 사상이론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가 전진도상에서 일대 시련과 곡절을 겪고 있던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회주의사상을 옹호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류혁명사에 영원불멸할 사상이론적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오늘의 **김일성**장군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강의 선군혁명전략으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미제국주의를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으며 주체사회주의를 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확고히 전망할 수 있는 대위업을 달성하시었습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48년 연석회의와 7.4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감격적인 평양상봉을 이룩하시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심으로써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민족대단결의 신기원을 개척하시었습니다.

이남민중은 오늘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신데 이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통해 주석님의 통일위업을 기필코 우리 대에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위인상에 탄복하는 한편 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강성대국을 하루속히 건설하겠다는 애국의 열정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충직한 전사, 제자들이며 한민전의 향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유훈을 높이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감격의 그날을 앞당기겠다는 열화같은 맹약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통일전선전략을 관철하는 것을 통일변혁의 기본열쇠로 보고 6.15공동선언실현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제기된 변혁과업을 수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면해서 민족통일전선촉진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결정적으로 추동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할 것이며 온 나라에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지도핵심조직들이 우후죽순처럼 장성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은 우리들의 절대염원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동지들과 이남민중의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7월 8일 서울